

# 경기 새천년, 문화의 脈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일러두기

1. 이 책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에서 위탁한 '문화유산활용-경기도 미래유산 발굴사업'의 결과물이다.
2. 본 사업은 경기도 문화유산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의 설정과 미래지향적 문화유산사업의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3.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담회 5회, 종합토론회 1회를 2014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이상의 모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과 쟁점을 구체화한 것이 이 책이다. 참고로 좌담회와 종합토론회의 좌장은 경희대학교의 양훈도 교수님이 맡았고, 좌담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4. 이 글의 집필자는 주제별 좌담회에 참석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분들이며, 이 책에 실린 원고는 좌담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5. 좌담회가 거듭되면서 '경기 천년'이 부각되었고, 좌담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경기 천년 기념 사업'으로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종합토론회는 '경기 천년, 새로운 맥을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 이 종합토론회에서 '경기 천년'의 개념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이에 이 책에서는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을 둘러싼 전문가 5인의 소견을 맨 앞부분에 실었다.

경기 새천년,  
문화의 脈

## 경기 새천년, 문화유산이 나아갈 길을 찾아서

이진복 \_ 열린사회연구소장

2018년 경기 천년을 계기로 미래문화유산의 발굴사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5회와 종합토론회를 양훈도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하였다. 이는 경기도 문화유산의 고갱이를 찾아내고, 그 중에서 미래지향적 고부가 가치를 지닌 문화아이템을 선정하고, 미래유산에 대한 선점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위해 기획된 콜로키움이었다. 그런데 ‘경기’라는 용어에서부터 활발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경기’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995년(고려 성종 14) 개경 주변에 6개의 적현(赤縣)과 7개의 기현(畿縣)을 설치하였는데, 1018년(고려 현종 8)에 적현과 기현을 묶어서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京畿)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기는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왕도의 외곽지역으로 현재의 지방행정 조직인 경기도와는 많이 달랐다. 경기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1018년부터 계산하여 2018년을 경기 천년으로 볼 수 있는가가 논쟁의 주된 이유였다.

경기 천년의 논쟁을 제외하고, 2018년 ‘경기 천년 새천년 경기도 - 문화의

맥을 찾아서 -'를 위한 조직위 구성과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주제별 좌담회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주제인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남겨야 할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것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부분, 등한시했던 부분, 특히 어둡고 슬픈 역사의 부분, 감추고 싶었던 사회 이면 등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보존사업, 그리고 발굴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유해발굴과 대비되는 양민학살, 적군전몰자 등에 대한 발굴과 한국 근대사의 일면인 양공주의 삶과 현장에 대한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제2주제인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한 문화유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6.25이후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유엔 참전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여 '세계 속의 경기도'를 활용할 것인가? 즉 6.25 한국전쟁은 남북만이 아니라 16개국의 참전국과 의료지원국 5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의 물자지원국이 직

접 관여한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 속의 한국’이 잘 부각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제3주제인 ‘경기 천년과 문화유산을 통한 공감나누기’에서는 지난 천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천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천년 경기 100선 프로젝트’를 문화적 사건으로 연결하여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징인 DMZ를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평화의 프로젝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글로벌 평화대학 설립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DMZ 내 습지를 중심으로 생태를 통한 통일을 시도하여 생태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제4주제인 ‘법고창신 경기정신의 발견과 선양’에서는 경기문화의 개념을 이상적 계획인 실화에 한정된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상을 현실화시킨 문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전파시키는 역할’ 즉 ‘문화를 선도하고 전국으로 보급하는 중심지로서의 경기도’가 부각될 필요가 있었다.

제5주제인 ‘경기 새천년을 위한 융복합 문화의 창출’에서는 경기 천년의 시간적 융·복합만이 아닌 공간적인 융복합 그리고 장르별 융복합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분단시대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문화예술 교류 추진 방안도 필요하며, 관광사업과 연계된 무형문화재의 활용 방안도 모색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제별 논의 속에서 ‘사라지는 풍물과 지역문화 기록화 사업’, ‘경기 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경기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등 경기도 미래문화유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 청일전쟁과 연관된 경기만 프로젝트,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고려시대 세계와의 교류와 융합의 지역인 예성강 프로젝트, 세계 평화와 생태 통일의 이미지를 위한 DMZ 프로젝트, 남·북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개성의 고려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 경기 삼성(개성·화성·안성)의 상업관련 프로젝트, 고고학 체험 동산의 건립과 운영 등에 관한 프로젝트 등은 새천년 경기도의 새로운 문화의 맥을 찾아가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제기되었다.

## 차 례

### 프롤로그 \_ 이진복 ... 4

####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

1. '경기 천년'의 역사적 고찰 \_ 이지훈 ... 12
2. '경기 천년'의 역사적 의미 \_ 김성환 ... 17
3.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에 대한 일견해 \_ 김세봉 ... 23
4.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 \_ 기호철 ... 26
5. '경기 천년'의 개념과 타당성 논의 \_ 이재범 ... 30

#### 제1주제 :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남겨야 할 것들

1. 경기만 프로젝트 \_ 이재범 ... 34
2. 사라져 가는 풍물과 지역문화 기록화 \_ 조운민 ... 40
3. 경기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_ 김성태 ... 45
4. 폐건물지 혹은 유희공간 활용 \_ 이진복 ... 49
5. 마을 정자목(亭子木)의 부활 \_ 장덕호 ... 54
6. 산업박물관의 조성 \_ 양훈도 ... 59

#### 제2주제 :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한 문화유산

7.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_ 이진복 ... 66
8. 6·25전쟁과 경기도 내 관련유적 활용사업 \_ 김낙진 ... 70
9. 경기 천년 축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축제로 \_ 박상일 ... 76
10. 개방과 소통의 공간, 한강-임진강-예성강 프로젝트 \_ 조운민 ... 82

### 제3주제 : 경기 천년과 문화유산을 통한 공감나누기

- 11. 천년 경기 100선 \_ 이광표 ... 90
- 12. 개성지역 불교유적의 조사와 활용 \_ 최태선 ... 94
- 13. 개성문화권 문화유산 종합활용 계획 \_ 박성진 ... 98
- 14. DMZ 내 생태계 보존과 활용 \_ 임봉구 ... 103
- 15. 동아시아 평화대학교 설립 \_ 양훈도 ... 109

### 제4주제 : 법고창신, 경기 정신의 발견과 선양

- 16. 조선시대 실무관료의 재평가와 선양 사업 \_ 기호철 ... 116
- 17. 경기도와 경화사족 관련 사적과 자료의 활용 \_ 이근호 ... 121
- 18. 경기도 능묘유적의 활용 프로그램 \_ 김성태 ... 126
- 19. 경기 삼성(개성·화성·안성)의 발굴과 현양 \_ 양훈도 ... 131

### 제5주제 : 경기 새천년을 위한 융복합 문화의 창출

- 20. 고고학 체험 동산의 건립과 운영 \_ 김성태 ... 136
- 21. 경기도 근현대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 조명 \_ 양원모 ... 141
- 22. 경기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_ 표신중 ... 145
- 23. 미래 자원이 될 문화유산 경기음식 \_ 염상균 ... 149
- 24. 고구려유적 대장정 답사 프로그램 \_ 허미형 ... 154
- 25.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_ 임재춘 ... 160
- 26. 경기도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_ 이형복 ... 167

에필로그 \_ 김성태 ... 172



##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

1. ‘경기 천년’의 역사적 고찰 \_ 이지훈
2. ‘경기 천년’의 역사적 의미 \_ 김성환
3.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에 대한 일견해 \_ 김세봉
4.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 \_ 기호철
5. ‘경기 천년’의 개념과 타당성 논의 \_ 이재범



# ‘경기 천년’의 역사적 고찰

이지훈 \_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경기’란 ‘서울[京]’과 ‘서울 주변지역[畿]’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경(京)은 천자의 도읍을, 기(畿)는 천자가 직접 관할하던 도성 주위 1,000리의 땅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경기제(京畿制)는 당나라가 북제(北齊) 이래 지방의 고을을 9등급으로 나누어 다스렸던 제도를 赤·畿·望·緊·上·中·下의 7등급 제도로 고쳐서, 도성안 혹은 경도(京都)가 다스리는 곳을 경기(京縣:또는 赤縣)으로, 도성 밖 주변지역은 기현(畿縣)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천자가 거주하는 3경(京)에 각각 두고 특별지역으로 통치하던 데서 비롯하였다.

경기제가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당나라 때였지만 경기의 이념적 기초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禮記)』, 『주례(周禮)』 등의 경전에서 이미 나타

났고, 그 형태는 역대 왕조의 ‘왕기(王畿)’ 또는 ‘기내(畿內)’를 계승한 것이었다. 경전상의 영역등급논리와 왕기 내지 기내를 중시한 사상은 특히, 주대(周代)의 관직체계를 담고 있는 『주례』에서 체계화되었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기에 ‘왕기(王畿)’ 또는 ‘기내(畿內)’라는 용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왕도(王都) 또는 그 외곽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기제(京畿制)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고려왕조라고 할 수 있고, ‘근본의 땅(根本之地, 『高麗史』 권77 志 31 百官 2 外職, 廉問使條)’ 혹은 ‘사방의 근본(四方之本, 『高麗史』 권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공양왕 3년 5월)’ 등으로 인식되었다.

고려시대 수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京畿)’라 한 것은 1018년(현종 9)의 일이다. 이것은 성종 14년에 시행하였던 적·기현제를 개편한 것인데, “개성부를 없애고 개성현령을 두어 정주·덕수·강음 등 3현을 관할하게 하고, 또 장단현령이 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평·마전 등 7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에 직속시켰는데, 이를 경기(京畿)라 하였다”라고 한 자료(『高麗史』 권56 志 10 地理 1 王京開城府, 현종 9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조에 따르면, 1069년(문종 23)에 양광도·교주도·서해도의 39개 주현이 새로이 편입되어 기존의 개성부와 더불어 경기제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경기제는 부정되거나, 혹은 군현제(郡縣制) 개편의 차원보다는 전시과(田柴科) 분급지역을 설정하려는 재정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경기제가 중앙에서 분리되어 지방제도로 자리잡은 것은 고려후기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의 성립이었다. 1360년(공민왕 9) 경기병마도통사(京畿兵馬都統使)를 둔 것을 시작으로 왜구의 방어와 관련된 병마직(兵馬職)이 설치되는 과정을 통해 경기가 차츰 좌·우도로 구분되어 갔고, 1388년(우왕 14) 경기좌·우도에 찰방(察訪) 겸 제창고전민사(諸倉庫田民事)를 나누어 보냄으로써 점차 행

정기구화 되었다.

경기가 도(道)로 확립된 것은 1390년(공양왕 2)으로 경기를 확장하여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각기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둔 때부터였다. 이때의 경기 확장은 ‘과전법(科田法:1391)’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었다. 과전법에서는 과전을 경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의 확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곧 조선시대의 도제(道制)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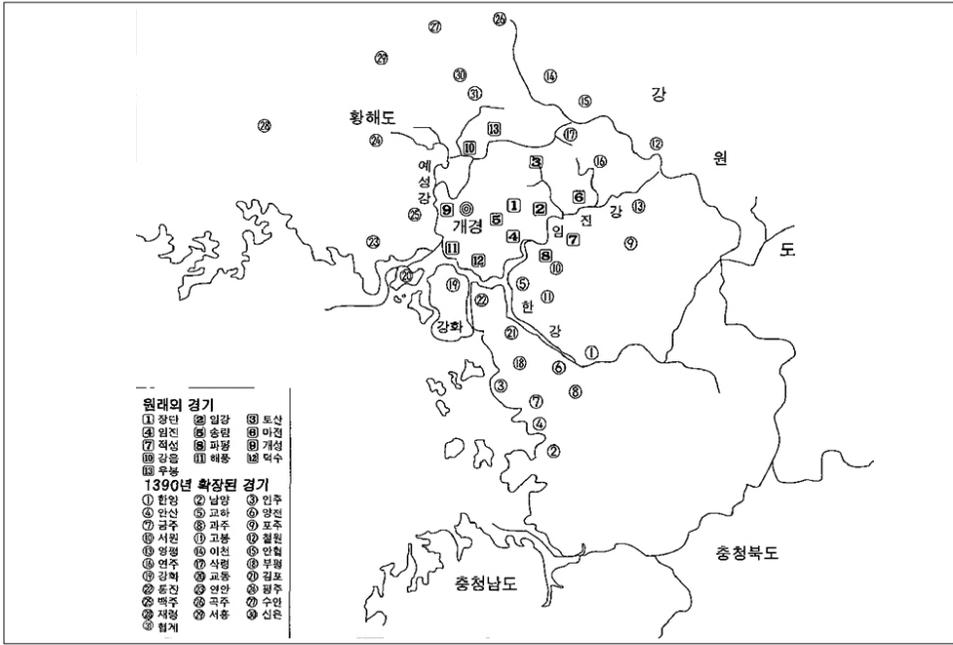
고려시대의 경기는 지금 현재의 경기도와 위치·면적·위상 등이 모두 달랐다. 지금의 경기도는 조선시대 한양 천도 이후 도성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재편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역사에 등장한 1018년과 그로부터 천년 후 맞게 되는 2018년은 새로운 전환점, 또는 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고려시대 경기제의 변천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여 소개하며, 아울러 ‘원경기 13현과 1390년 확정된 경기도 영역’ 및 ‘고려시대 경기 지역 변천도’를 참고로 덧붙인다.

### 〈고려시대 경기제의 변천〉

연 대	소 속	내 용		기 타
919 (태조2)	개주 (開州)	도읍을 송악의 남쪽에 정하여 개주라 하고 궁궐을 지음		
995 (성종14)	개성부	적현 6개와 기현 7개를 관장 *성종대의 적·기 13현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종 9년의 경기 12현과 같은 것으로 추정		
1018 (현종9)	상서도성 (尙書都省)	개성현령 (開城縣令)	정주·덕수·강음	파부치현 위지경기 (罷府置縣 謂之京畿)
		장단현령 (長湍縣令)	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평·마전	
1062 (문종16)	개성부	지개성부사를 회복시켜 도성 소장의 11현을 모두 소속하게 하였으며, 서해도 평주의 임내인 우봉군을 떼어내 예속시킴		
1069 (문종20)		양광도 (楊廣道)	한양·사천·교하·고봉·풍양·심악·행주·해등주·견주·포주·봉성·김포·양천·부평·동성·석천·황조·황어·부원·과주·인주·안산·금주·남양·수안	속경기 (屬京畿)
		교주도 (交州道)	영흥·토산·안협·승영·삭영·철원	
		서해도 (西海道)	연안·백주·평주·협주·신은·우봉·통진·안주·봉주·서흥 등 주현	
1308 (충렬34)	개성부	부윤 이하의 관을 설치하여 도성 안을 관장케 하고, 별도로 개성현을 설치하여 성 밖을 관장케 함		
1390 (공양2)	좌도	개성현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	도관찰출척사 수령관이 보좌 依文宗舊制 (문종 23) 분경기위좌우도
		양광도	한양·남양·인주·안산·교하·양천·금주·과주·포주·서원·고봉	
		교주도	철원·영평·이천·안협·연주·삭영	
	우도	개성현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	
		양광도	부평·강화·교동·김포·통진	
		교주도	연안·평주·백주·곡주·수안·재영·서흥·신은·협계	

\* 경기가 도로 확립된 1390년 이후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라고 칭했을 가능성이 있음.



〈원경기 13현과 1390년 확장된 경기도 영역〉



〈고려시대 경기지역 변천도〉

# ‘경기 천년’의 역사적 의미

– 2018, 경기도의 역사문화가 나아가 할 방향 –

김성환 \_ 경기도박물관 학예팀장



‘경기(京畿)’란 도읍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왕성(王城)을 지지하는 행정지리적인 개념이다. 중국 역사에서의 유래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왕과 왕실이 거주하며 왕조(王朝)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할 제반 여건들이 필요하였다. 《고려사》에서 ‘경기’는 이 같은 목적에서 1018년(고려 현종 9)에 고려의 도성(都城)이었던 개경(開京)을 둘러싸고 있던 개성(開城)·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장단(長湍)·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12개 현(縣)을 상서도성(尙書都省)이 직접 관할하게 함으로써 성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성종 6년(987) 5부의 방리(坊里)를 개정(更定)하였고, 14년(995) 개성부(開城府)를 만들어 적현(赤縣) 6곳, 기현(畿縣) 7곳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현종 9년(1018)에 부(府)를 폐지하고 현령(縣令)을 설치하여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 3개 현(縣)을 관리하게 했다. 또 장단현령(長湍縣令)에게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 7개의 현(縣)을 관리하게 했는데,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켰으니 이것을 경기(京畿)라고 한다.<sup>1)</sup>

그러나 그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런데 《고려사절요》에서 음력 2월 여러 도(道)의 안무사(按撫使)를 폐지하고 4도호(都護)·8목(牧)·56지주군사(知州郡事)와 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을 두었다는 기록을 참조할 때,<sup>2)</sup> 이때 995년 적현(赤縣) 6곳, 기현(畿縣) 7곳이 설치되어 개성부(開城府)의 관리를 받아오던 경기제의 실행 움직임은 1018년 2월에 개성과 장단의 2개 주현(主縣)과 8개의 속현(屬縣), 즉 12개 군현을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 관할하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제의 실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경기제(京畿制)의 설치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9세기 중엽 이후 견훤의 후백제·궁예의 태봉, 그리고 천년의 왕국 신라로 분열된 후삼국의 분열을 경험하면서 옛 고구려의 부소압(扶蘇岬)과 동비홀(冬比忽)이었던 통일신라시대의 송악군(松岳郡)과 개성군(開城郡)을<sup>3)</sup> 중심으로 901년에 신왕조인 후고구려가 건국되고 그곳이 도성으로 결정되면서부터 이미 준비될 수밖에 없었다. 궁예

1)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왕경 개성부.

2) 《고려사절요》 권3, 현종 9년 2월 참조.

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참조.

가 고구려 유민의 도움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하여 개성에 잠시 도읍했다가 곧 철원으로 옮겨가면서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면서 개성이 역사 무대의 중심으로 재등장하는 데는 10여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궁예의 이 같은 조치는 고구려의 부흥을 도모했던 고구려 유민들의 반발로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고, 예성강 일대의 호족으로 고구려 유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그 도읍을 다시 개성으로 옮겨오며 따라 개성 일대는 이후 우리 역사의 중심으로, 경기계 출발로써 자리하게 되었다. 이때가 918년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천명한 건국이념은 ‘일통삼한(一統三韓)’<sup>4)</sup> 즉 후삼국의 통합과 통일이었다. 이 통합의 이념은 14세기 말 고려가 망할 때까지 5백년 동안 고려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옛 백제·신라 지역까지 아우르는 통섭의 국토운영과 이용의 원리이자 그 토대를 이루었던 고려문화의 Key Word였다. 고려의 사회와 문화가 다원성[다양성]·개방성·변화성 등을 지닐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남북국시대의 분열적인 역사 경험을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를 지지했던 것이 왕도(王都)를 배후에서 튼실하게 버티고 있던 ‘경기제’였다.

2018년은 실질적인 경기제의 운영 1,000년임과 동시에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70여년 이상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보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실에서, 각 계층이 집단이익을 목적으로 이합집산하는 현실에서 ‘경기 천년’과 ‘고려 건국 1,100년’이 지나는 의미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첫째, 남북 분단의 현실과 통일

4)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 太祖 訓要 참조.

의 지향은 분열되었던 후삼국을 ‘일통삼한’했던 고려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방법과 대책을 배워야 한다. 둘째,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에게 침탈되어 이후 일제강점기, 6·25전쟁, 군사정권 등의 왜곡된 역사를 버텨낼 수 있게 한 동인이었던 단일민족으로서의 한민족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미래의 발전적인 도약을 위해 새롭게 정립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고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원성[다양성]·개방성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 분열되어 상호 교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통합과 변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 고려사회가 추진했던 유신(惟新)의 개혁성을 연구하고 배워 이에 대처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와 지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경기 천년’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기 천년’을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통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문화기반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간략하게 제안한다.

첫째, 고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와 개성[현재 황해북도 개성특별시]의 역사문화적인 동질인식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기획, 개발하여 추진한다.

둘째,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고려문화단지를 통일을 대비한 남북문화 교류사업의 중심에 놓고 세부 사업을 기획하여 적극 추진한다.

셋째, 고려문화에서 개혁성[惟新]을 주제로 한 문화 역량을 연구조사하고 전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려 사회 변혁과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간다.

## 기획사업의 제안

1. 파주 도라산역과 개성을 잇는 올레길 문화관광 -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를 통해 개성관광의 복원과 함께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파주 도라산역과 개성 사이의 도로를 도보로 여행함으로써 분단과 통합,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문화관광사업 개발, 추진.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개성역사지구를 적극 연결하여 숙박이 가능한 통일문화상품으로 개발.
2. 개성박물관 ↔ 경기도박물관의 교류사업 - 통합·통일이 국시(國是)였던 고려의 중심이었던 고려시대의 경기문화를 연구하고 전시를 통한 이해의 확장을 통해 조선시대의 경기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경기문화의 범위와 가치 등을 재정립할 필요 대두. DMZ 소재의 대표적 인 고려시대 역사유적으로 고려 왕실의 가장 중요한 사찰이었던 흥왕사(興王寺) 등의 공동 조사 실시.
3. 고려의 국가적인 축제인 팔관회(八關會)의 복원과 재현 - 대내외적으로 황제국임을 표방했던 고려의 세계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축제인 팔관회를 복원하여 국제관계의 질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시켰던 고려문화의 정수를 고려 황제가 진행했던 만월대에서 재현하여 남북통합의 분위기를 적극 마련하고 이 축제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4. 1996년 개관 당시의 전시내용과 체계를 가진 경기도박물관의 전면적인 리노베이션(Renovation)  
통합과 통섭, 통일을 지향으로 하는 경기역사문화의 주제 발굴과 이를 테마로 하는 조사연구, 그리고 이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전시·교육하는

경기도박물관 전시내용의 전면 개편이 시급함. 특히 현재 개편 운영되고 있는 제7차교육과정에 맞게 전시실을 개편하여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역사전쟁 속에서 한국문화의 주류를 이끈 경기문화의 가치를 재정립.

#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에 대한 일견해

김세봉 \_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한한대사전편찬실



《고려사》 권56, 지리지 ‘왕경 개성부’ 편에 보면 〈현종 9년(1018년)에 개성부를 혁파하여 현령을 두고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 3현을 관장하게 하고 또 장단현령(長湍縣令)이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 등 7현을 관장하게 하고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예하여 경기라고 하였다〉는 언급이 있다.<sup>1)</sup>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경기의 관할 구역은 개성·정주·덕수·강음·장단·송림·임진·토산·

1) 《高麗史》卷56, 地理志, 王京開城府, “顯宗九年, 罷府置縣令, 管貞州·德水·江陰三縣, 又長湍縣令, 管松林·臨津·兎山·臨江·積城·坡平·麻田七縣, 俱直隸尙書都省, 謂之京畿.”

임강·적성·파평·마전 등 12현이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말인 공양왕 2년(1390년)에 경기를 좌·우도로 나누어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 등 8곳을 경기좌도라 하고, 개성·강음·해풍(海豐)·덕수·우봉(牛峯) 등 5곳을 경기우도라 하여 경기좌우도를 통틀어 경기라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sup>2)</sup> 경기 설치 당시 12현이었던 경기가 정주가 제외되는 대신 해풍과 우봉 2현이 더 합류되어 13현이 되었던 것이다.

뒤이어 <또 문종(文宗)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양광도(楊廣道)의 한양(漢陽)·남양(南陽)·인주(仁州)·안산(安山)·교하(交河)·양천(陽川)·금주(衿州)·과주(果州)·포주(抱州)·서원(瑞原)·고봉(高峯), 교주도(交州道)의 철원(鐵原)·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 등을 좌도에 속하게 하고, 양광도의 부평(富平)·강화(江華)·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通津), 서해도(西海道)의 연안(延安)·평주(平州)·백주(白州)·곡주(谷州)·수안(遂安)·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 등을 우도에 속하게 하여 각각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설치하여 수령관(首領官)으로 보좌하게 하였다.><sup>3)</sup> 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두 사실을 통해 볼 때 경기라는 명칭이 고려 현종 때 비로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의 기록이 전하는 경기와 지금의 경기와는 그 관할지역 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나마 고려가 국운을 다하기 직전인 공양왕 때 와서 나름대로 관할지역이 확대되어 지금의 경기 지역과

2) 《高麗史》卷56, 地理志, 王京開城府, “恭讓王二年, 分京畿爲左·右道, 以長湍·臨江·兎山·臨津·松林·麻田·積城·坡平, 爲左道, 開城·江陰·海豐·德水·牛峯, 爲右道.”

3) 《高麗史》卷56, 地理志, 王京開城府, “以楊廣道漢陽·南陽·仁州·安山·交河·陽川·衿州·果州·抱州·瑞原·高峯, 交州道鐵原·永平·伊川·安峽·漣州·朔寧, 屬左道, 以楊廣道富平·江華·喬桐·金浦·通津, 西海道延安·平州·白州·谷州·遂安·載寧·瑞興·新恩·俠溪, 屬右道, 各置都觀察黜陟使, 以首領官佐之.”

합치되는 지역이 많이 눈에 띄지만 황해지역과 강원지역이 겹쳐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에 해당되는 안성이나 평택을 비롯한 여러 지역은 조선에 들어가서야 경기로 편입되는 현상 등과 고려해볼 때 고려시대의 경기와 지금의 경기를 어떤 선상에서 조합하고 배열할 수 있을까를 나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명칭으로서 경기를 쓴 것을 표면에 내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경기와의 관련성의 심도 측면에서 경기의 모습을 그려야 할 것인지 아울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분명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와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는 다른 게 사실이고, 그럴 때 과연 그 다른 것 가운데 합치시켜 일구어내야 할 총체적 경기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 변천을 거쳐 온 경기의 모습과 지역적 공간 개념으로서의 경기의 시공간적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어낼 수 있을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경기 천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논할 만한 충분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앞서 제시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개진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면에서 혹 ‘경기 천년’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쭙지 않은 일단의 견해가 있음을 삼가 말씀드리는 것인 바 이 점에 있어서 관계자분들의 넓은 혜량이 있으시기를 바랄 뿐이다.

# ‘경기 천년’의 개념 설정과 타당성 논의

기호철 \_ 서울대 의대 고병리연구실 연구원



## ○ 경기 천년은 과연 천년인가?

《고려사》 권56 지(志)10 <왕경 개성부>에 “현종 9년(1018)에 개성부를 파하여 현령을 두고 정주(貞州), 덕수(德水), 강음(江陰)을 관할하게 하고, 또 장단 현령(長湍縣令)이 송림(松林), 임진(臨津), 토산(兔山), 임강(臨江), 적성(赤城), 파평(坡平) 등 7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직속으로 하고 경기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거하여 2018년이 경기 천년이 되는 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왕경 개성부>의 저 기록 앞에는 태조 2년 송악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개주(開州)라고 하여 궁궐을 새로 짓고, 시전(市廛)을 세웠으며, 방리(坊里)를 가

르고, 오부를 나눈 이후, 광종 11년(960)에 개경(開京)으로 고치고 황도(皇都)로 삼았으며, 성종 6년에는 다시 오부와 방리를 정하였고, 성종 14년(995)에는 개성부로 삼아서 적현(赤縣) 6곳과 기현(畿縣) 7곳을 관할하게 하였다는 개성부의 내력이 적혀있다.

성종 14년 왕도로써 국왕 직할지인 적현 즉 경(京) 6곳과 적현 밖의 기전(畿甸)의 땅인 기현(畿縣) 7곳을 관할하게 하였다고 하므로 이미 경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도 고려 경기의 처음 개념이 아니다. 광종 11년(960)에 세운 황도라는 개념은 이미 이와 같은 것으로 직할지와 그 밖의 기전으로 나눈 것이므로 확실한 경기의 개념이 있었다.

광종(光宗) 16년(965)에 세운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에는 951년 광종이 정진대사를 만나고자 하였는데 대사가 개경에 가는 길에 “대사를 따르는 승려는 월악산(月岳山)을 지나오고, 왕이 보낸 사신 일행은 한강(漢江)을 건넜으니, 이미 우연히 만나 기꺼웠으므로 멈칫대며 물러나겠다고 주장하지 못하였다. 함께 기전(圻甸) 길에 접어들자, 왕이 보낸 일행이 교외(郊外)까지 나와 예를 갖추고 기다리다 영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기전(圻甸)은 원래 천자의 영지(領地)라는 뜻으로 사방 1천리 안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기전(畿甸)과 같은 말이며 기보(畿輔), 왕기(王畿)와도 같은 뜻이다. 경기(京畿)는 경도(京都)와 기전을 함께 이르니 고려시대에는 개경까지 아우르는 말이고, 조선시대에는 한성부까지 아울러 이르는 말이었다. 그러나 경도를 따로 이르는 경우 경기가 사용되면 기전의 뜻이 되기에 결국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위 기록으로 광종이 황도로 삼기 이전인 951년에 이미 경기(京畿)가 구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고려사》에서 말한 경기는 적현과 기현을 아우르는 것으로 표현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태조 2년 개주로 삼았을 때부터 이미 경기는 존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고 오늘날의 경기도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한

강 이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경기 천년은 단순히 경기(京畿)라는 어휘가 쓰인 기록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1018년이라는 의미이지 오늘의 경기도 일부가 최초로 경기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 천년은 다른 표현이나 1천여 년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며 천년의 근거자료도 명확히 활용하여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경기 천년 ; 그 문화적 개념

경기는 공간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와 그를 에워싼 일정 지역을 이르는 이름이었다. 오늘날의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에워싼 일정한 지역으로 조선시대 경기와 그 위상에 거의 차이가 없어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유구하며, 대체로 한강 이북은 고려시대까지도 경기지역으로 소급된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경기는 어떤 특질이 있었는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수도와 하나의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군사적으로는 도성을 지키는 보장(寶藏)이 되었고 수도와 하나의 방위체계로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지방의 물산이 모이는 곳이었고 새로운 선진물산이 경기를 통해 지방으로 퍼져 나갔다. 사회 문화적으로 지방보다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여 이를 체득하여 지방으로 전파하는 곳이었다. 특히 선진문물을 도입하여 이를 우리 것으로 체득한 곳이 경기도였고 이렇게 체득한 것을 지방에 전파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는, 수도가 행정을 관할하는 수레바퀴의 굴통과 같았다면 경기는 그 장구통, 바퀴통, 바퀴살 따위로써 굴래미를 형성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경기는 수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치, 경제, 군사, 경제, 문화의 허브[Hub]라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 경기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는 이런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따라 경기도는 그

역할도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세계의 과학기술과 문화가 경기로 모이고 이것을 다양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세계 각국에 전달하는 세계의 기능으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경기문화 천년은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 경기 천년의 개념과 타당성 논의

이재범 \_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 ○ ‘경기’의 의미와 개념

‘경기 천년’의 의미는 양면성을 갖는다. 역사적 의미로서의 ‘경기 천년’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 천년’이다. 한편으로는 미래로서의 ‘경기 천년’이라는 의미도 갖게 된다.

‘경기 천년’에서의 ‘경기’는 현재의 ‘경기도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과 그 공간 내에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좀 더 외연을 확대하자면 ‘경기’라는 개념적 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기’에서의 ‘경’은 천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뜻한다. ‘기’는 천자가 거주하는 ‘경’으로부터 500리 이내(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기’라는 용어는 면적이 아니라 일종의 개념이

다. ‘경기’는 곧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자로 확인되기 시작한 시기는 삼국시대부터이다. 신라에서는 ‘왕기(王畿)’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경기’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라 칭한 것은 1018년(현종 9)부터이다. 995년(성종 14)에 설치되었던 개경 주변의 6적현과 7기현 중 왕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현을 묶어 ‘경기’라 부르고, 주현(主縣)인 개성현과 장단현(長湍縣)의 현령(縣令)으로 하여금 분할 통치하게 하여 지방행정조직의 하나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경기’는 1069년(문종 23)에 양광(楊廣)·교주(交州)·서해도(西海道)로부터 39현을 받아 들어 원경기(原京畿) 13현과 합해 총 52현을 관할하는 규모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390년(공양왕 2)에 총 44현을 통할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도(道) 단위의 지방조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경기도’와 달리 ‘경기’는 천하의 중심을 의미하는 일종의 개념이며, 그 문자의 기원은 1018년(현종 9)부터 이므로 2018년을 ‘경기 천년’이라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경기 천년’의 타당성

‘경기’라는 공식적인 제도적 조치가 취해진 1018년을 경기원년이라고 해도 좋을까? 나는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경기’라는 용어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개념적 표현이면서 국가의 중심이 어디인가에 따라 지역성을 갖게 된다.

‘경기’라는 개념이 신라에서도 존재했으나, 그 당시의 ‘경기’는 동경(경주)이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경기도와는 다른 지역이었다. 그러나 1018년의 ‘경기’는 지금의 경기도와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실제로 고려 말의 경기 좌·우도는 태조·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다시 ‘경기’로 합칭되었다. 그리고 수안·곡주·연안 등 이전 경기의 서북지역이 풍해도(豐海道 : 지금의 황해도)로 환속되었고, 광주(廣州)·수원·여주·안성을 비롯한 동남지역은 경기로 이속되어 한

양을 중심으로 한 재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조선 말기 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중심지역이라는 의미의 ‘경기’를 지금의 경기도가 계승하였다고 판단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2018년을 ‘경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경기도가 ‘경기’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의 ‘경기’의 상속자로서의 경기도가 ‘경기 천년’을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기 천년’이 갖는 뉴앙스로서의 미래의 ‘경기 천년’도 가능한 설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기 천년, 천년 경기’ 등의 구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기’가 천년이 되었고, 앞으로 천년 이상 ‘경기’가 번창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제1주제 :

##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남겨야 할 것들

1. 경기만 프로젝트 \_ 이재범
2. 사라져 가는 풍물과 지역문화 기록화 \_ 조윤민
3. 경기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_ 김성태
4. 폐건물지 혹은 유휴공간 활용 \_ 이진복
5.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마을 정자목(亭子木)의 부활 \_ 장덕호
6. 산업박물관의 조성 \_ 양훈도



# 경기만 프로젝트

이재범 \_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 ○ 이 구상의 기본방향은?

경기만에 산재한 역사, 문화 자연 등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문화적 교양을 함양하고, 그 자원을 산업적으로 접근하여 미래유산화 한다.

경기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반도의 중심부이며 서해를 건너 중국과 가장 이용이 편리한 해로를 보유하고 있다.

생활환경은 언제나 양호하여 중생대에는 공룡들의 서식지였고,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강화도일대는 한반도 문화의 복합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문화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이다.

또한 고대로부터 여러 세력이 접촉하는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고구려 광개

토대왕의 군대가 파견되기도 하였고, 당의 군대가 이 일대를 점령한 뒤 한반도로 들어왔으며, 고려시대에는 팔관회무역을 하기 위해 외국 상인들이 선단을 이끌고 왔으며, 고려 후기에는 왜구들이 교동도, 강화도 등을 점령하여 개성을 위협, 조선시대에는 교역의 장소였고, 19세기말에는 개화의 현장이며, 제국주의 침략을 당하기도 했던 지역이다.(운양호와 영종도, 강화도 등) 현대에 들어서도 연평도 기습, 천암함 폭침 등 도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시에는 교역의 바다, 위기시에는 전쟁의 바다가 경기만이다.

특히 풍도는 해상의 요충지로서 일본의 해군제독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는 ‘동해에서는 독도, 서해에서는 풍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한다.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경기만 통과 선박이 모두 보이는 곳이다.

### ○ 이 구상의 배경은?

가. 역사적 배경 : 올해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지 110년이 되는 해이다. 청일전쟁의 시발지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속의 풍도, 러일전쟁의 시발지는 인천항이다. 그러므로 경기만은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서 전쟁발발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세계인이 공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전쟁이라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풍도해전(전란) : 1894년 7월 25일 7시 52분경, 일본 쾌속 순양함이 청의 함정을 포격하였다. 영국 함선인 고승호와 청군 1,100여 명도 이때 침몰하였다. 일본은 선전포고 이전에 포격을 가하였다. 러일전쟁때도 풍도를 거점으로 하여 여순과 제물포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함선을 유인하여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연유로 풍도에 관하여 교과서에도 수록하고, ‘언덕 위의 구름(坡の上の雲)’ 소설을 드라마화하여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있다.

다. 정치적 배경 : 현재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어느 시대보다도 위협

적이다. 주변국상황은 세계 군사강국 1~4위(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개입과 대립을 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자주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쟁과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하여야 할 필연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문화유산적 배경 : 경기만은 풍도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풍도 주변은 화성 공룡화석지, 경기만 갯벌, 염전, 폐광산 등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마. 환경적 배경 : 현재 풍도는 채석장으로 골재를 채취하느라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훼손이 되어 가고 있다. 야생화도 급속히 줄어들어 가고 있다.

바. 교육적 배경 : 세계대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소홀하다. 한국사 교과서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 단지 양 대전 이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침략이 심화 되었다는 정도의 서술이 있다.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양 대전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 구상의 목적은?

한·중·일의 근대가 시작되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중심지였던 경기만 일대를 하나의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부각시켜 미래 세계전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미연에 방지한다는 평화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많은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만을 개발하여 문화상품화하여 미래가치를 키워야 한다.

- 미래의 경기만 : 앞으로는 해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공중수송이 발달하더라도 해양을 통한 물류의 이동은 축소되지 않을 미래산업이다. 또한 해양크루즈산업은 최상의 잠재된 미래 관광산업이다. 경기만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한 미래의 해상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 ○ 분쟁지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

- 흥커우공원(虹口公園) : 1932년 4월 29일 일본은 상해사변(上海事變)을 일으켜 상해를 점령한 뒤 전승기념 및 천장절(天長節) 기념식을 상해 흥커우공원에서 거행하였다. 이때 윤봉길 의사가 사열대 위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요인을 폭살시켰다. 당시 사상자는 일본군사령관 대장 시라카와(白川義則), 해군중장 노무라(野村吉三郎), 육군중장 우에다(植田謙吉), 주중공사 시게미쓰(重光葵), 상해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타(河端貞次), 총영사 무라이(村井倉松) 등과 다수의 간부들이었다. 이 중 시라카와는 중상을 입은 뒤 5월 24일 사망하였고 가와바타는 즉사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일제의 침략을 받아오던 중국인들을 열광시켰고, 그들에게 한국독립운동을 새롭게 인식시켜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게 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이 매헌공원, 일본이 사쿠라공원을 세워 자국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 ○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경기만 프로젝트는 경기만에 소재한 자연경관과 역사 공간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역사·문화 지역화하는 사업이다.

가. 풍도 청일전쟁 박물관 조성 : 풍도는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여 풍도(楓島)라고 하다가 근래에 8도제를 23부제로 바꾸면서 풍도(豊島)가 되었다. 인조2년(1624) 정월 이괄이 논공행상에서 우대 받지 못하고 평안병사 겸 부원수가 되자 난을 일으켰을 때 인조가 반란을 피해 서울을 떠나 풍도에 머물다 은행나무(수령 500년)를 심었다고 하는 말이 전한다. 이 은행나무는 소정방이 심었다고 하기도 한다.

특히 풍도는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역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도 청일전쟁때의 침몰함선이 있다고 전한다. 당시 상황을 소개하는 박물관을 설립하여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서의 경기만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 시켜야 한다. (하얼빈은 안중근의사의 의거지역으로 알려져 기념관이 있다. 상하이 훙커우 공원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역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르비아는 세계 제1차대전의 원인 제공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나. 풍도지역 야생화 중심의 생태공원 조성 : 야생화의 천국. 풍도바람꽃, 복수초, 노루귀, 풍도대극, 꿩의 바람꽃 등이 봄이 되면 만개한다. 이를 활용하여 박물관과 함께 개발하여 세계 평화공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한다.

다.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安山大阜鑛山堆積巖層) 개발 :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중생대 후백악기(7,000만년 전후)의 응회암질(화산쇄설물) 사암 내지는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대부광산 암석채취 중 초식공룡 케리니키리움 발자국 1족이 발견 신고된 이후 총 23개의 공룡발자국 및 식물화석 클라도플레비스(Cladophlebis)가 발견되었다. 인근 화성의 시화호 공룡알화석지(천연기념물 제414호)와 관련되어 당시의 식생 및 환경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질층이다.

라. 화성 공룡박물관 : 1999년 4월 25일 시화호 방조제 완공 이후 갯벌 생태계 변화를 조사 하던 중 고정리 일대 과거 섬이었던 곳들의 주변에서 공룡알 화석들이 발견돼 학계에 알려지게 됐으며 2003년 3월 21일 천연 기념물 제 414호로 지정됐다. 퇴적층에서 공룡알 화석이 나타나 약 1억20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산란장 및 서식지로 추정.

### ○ 기대효과는?

- 경기도의 지정학적 위치 재인식 : 세계분쟁지역이자 평화유지 지역으로의

## 중요성.

- 풍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 크루즈 산업(아라뱃길-인천-강화도-풍도-전곡항-화성공룡유적지-폐광산-화성 등)
- 풍도의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은 자연보존으로서의 환경사업.
- 서해 중심의 한반도 평화지역 조성. 풍도와 비무장지대 등 연계.
- 세계에 경기만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중요성을 알린다.
- 풍도는 1박2일에서도 소개가 되어 현재 인지도가 급상승.
-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청일·러일전쟁 관련 국제 크루즈 사업 개발(231고지<요동> → 威海<청의 해군사령부> → 풍도 → 울산전투<러일전쟁> → 쓰시마해전 등).

# 사라져 가는 풍물과 지역문화 기록화

조윤민 \_ 다큐멘터리 작가



## ○ 이 구상의 기본개념과 방향은?

조만간 사라지거나 소멸 위기에 처할 경기 지역의 풍물과 문화를 기록하고 정리한다. 경기 지역 사람들의 삶과 생활문화, 전통의례와 행사, 직업과 일터, 사회와 역사의 공간 등을 글·사진·영상 등의 기록매체로 담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그 결과물을 보존하고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 사람들의 삶과 문화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뒷받침할 한 토대를 마련한다.

## ○ 이 구상의 배경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선 집단적·문화적 기억은 한 사회의 공통 지식을 형성

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이러한 공통 지식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사라지거나 공통 지식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세대는 물론 시대 간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연속성과 지속성의 기반마저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집단적·문화적 기억은 그 대상이나 현상이 기록되어 보존되고 널리 공유될 때 더욱 활성화되고 더 오랜 수명을 갖는다. 또한 기억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본질적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억의 수단인 기록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삶의 모양새와 문화 양식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에선 앞선 시대의 삶과 문화는 그 자체로 소멸하거나 잊히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삶과 문화에 교착되고 영향을 미쳐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남는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 변화는 지난 시절의 삶의 모양새와 문화 양식을 거의 파괴적으로 소멸시키고 있다. 갈수록 가속화되는 사회변화는 세대 간의 단절을 앞당기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긴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정체성은 혼란을 거듭하고 사회 연속성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다음 시대에 교착되고 영향을 미치는 한 시대의 삶과 문화를 위해, 경기도라는 한 사회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급변하는 근현대기를 지나온 경기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한다. 그래서, 기억되는 경기 사람들의 삶, 기억되는 경기 사회, 기억되는 경기의 시대를 예약한다. 경기도의 정체성과 경기 문화의 연속성 추구라는 맥락에서 행해질 이 기록화 작업은 살아있는 경기의 역사를 써나가는 일이 될 터이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문자 기록과 사진을 기본으로 삼고 소재에 따라 동영상 기록을 병행한다. 문자와 사진 기록의 경우, 기록 방식은 소재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한다. 르브 형식·문화인류학적 현지조사·구술기록방식 등을 활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두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영상 기록 병행의 경우는 문자 및 사진 기록 제작진과의 협조와 연계로 작업을 추진한다.

작업 결과물은 분야별 혹은 주제별로 엮어 책으로 엮어낸다. 이와 함께, 결과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모바일 자료로도 제공한다.

기록 대상은 ‘조만간 사라지거나 잊힐 경기 사람들의 삶과 문화’라는 큰 틀에서 선정하되, 경기 사람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경기도 특유의 문화 행위나 현상에도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근래 사라질 위기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문화 양식이나 사회 역할 측면에서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재의 경우, 공유와 재인식이라는 맥락에서 기록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큰 변화에 직면한 경우도 기록 대상이다. 기록할 분야나 범위는 크게 보면 사회와 생활·전통문화·일상생활·직업과 일터·산업·소외 지역·분단과 군사 등으로 나뉜다.

각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 대상을 보면, 사회와 생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특수 시장을 들 수 있다. 지역 오일장·동두천 양키시장·안성 우시장·성남 인력시장 등이 있으며, 평택 국제시장과 소래포구 어시장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 간이역과 수인선 철길 흔적, 징검다리과 섯다리 등도 이 분야에 해당한다.

경기도 특유의 대상으로는 민통선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 군사통제로 인해 형성된 경기도 내 민통선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과 생활문화를 기록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공간과 전쟁기, 이후의 군사대치기를 지나면서 삶을 영위해온 이 지역 노인들의 사회생활사를 구술작업을 통해 기록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연천 UN 화장장 시설, 철원의 노동당사, 비무장지대(DMZ) 안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마을, 기지촌 등 분단과 군사 관련 장소와 유적도 기록 대상이다.

전통문화 분야에서는 문중 시제(時祭)·사당 제례·향교 및 서원 의례 등이

있으며, 마을 단위로는 동제·우물제·산신제가 있다. 전통 통과의례도 기록 대상이며, 특히 전통 장례와 상여소리꾼이 주목된다. 절기마다 행하는 의례와 행사도 빠트릴 수 없다.

전통 부엌·우물터·빨래터·다듬이질·초가집·적산가옥·전통놀이 등 일상생활 분야도 소중한 기록 대상이다.

사라져가는 직업과 일터에는 서커스 곡마단원·칼같이·땅꾼·주물꾼·옹기장이·대장간·활판인쇄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염전과 광산, 술도가 등의 산업현장도 있으며, 생활용품 생산 분야의 수공업 위주 작업장도 포함된다.

소외지역으로는 판자촌과 달동네, 집장촌을 들 수 있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기록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과 영상 위주의 전시회를 구성해 경기도 지역 전시뿐 아니라 전국순회전시도 갖는다.

상설 전시관 조성도 고려한다.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자료관’이란 명칭으로 독립된 전시관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기존 박물관에 별관 형식으로 전시실을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 ○ 대략적인 운영방식은?

사업 수행주체 구성과 인력관리, 사업진행 방식 등 기본적인 사업운영 방식은 기존 유사 사업의 관례에 맞추어 선택한다.

1년 단위의 1회성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수년을 두고 작업을 해나가는 장기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대상을 기록하고 자료를 계속 쌓아가는 방식이다.

사업에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한다. 기록대상 선정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경기도민이 추천하는 소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민이 촬영한 기록대상 사진을

선별해 해당 결과물에 신는 방안도 활용 가능하다.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민통선과 군사지역 관련 대상은 군 당국의 허가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한다.

기록 대상이 사유지나 사생활에 관계될 경우에도 사업 기획 단계에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 ○ 기대효과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사회적 관심을 덜 받는 것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세대 간·계층 간·지역 간 갈등과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경기도민의 조화로운 문화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도민이 기록대상을 선정하고 사진을 제공하는 시민참여 방식은 본 사업은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른 문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기록 결과물 전시회와 상설전시관은 경기도의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을 공감하는 자리이자 화합과 연대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전국순회전시는 경기도의 문화 다양성을 알리고 경기문화를 홍보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1주제 좌담회에서 여러 사람이 산발적으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조윤민이 체계화·구체화시켰다.

# 경기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김성태 \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 ○ 구상의 배경은?

최근 20년여 년간 개발의 광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다. 그런 와중에서 근대 생활문화의 흔적들은 무관심 속에서 대부분 멸실되었다. 필자는 경인지역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총괄하였고 직접 참여했다. 아마도 가장 많은 면적의 지표조사를 직접 수행했고, 가장 많은 건수의 지표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 관리하였다고 자인한다. 지난 20여 년간의 수많은 지표조사를 수행하면서 근현대의 풍물들이 현물로 보존되지 않음은 물론, 기록조차 되지 않은 채 멸실되어 감을 목격했고 안타까워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대 근현대 생활문화유산에 대한 수집과 기록을 잘 했다면, 지금 그것들이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먼

미래에는 귀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를 때’라는 말도 있지만, 타이밍을 놓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 ○ 기본 개념은?

좌담회에서 경기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때 만해도 필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기본개념이 확고하지 않았고, 문화사적 당위성에 대한 철학도 빈곤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확고하지 않았다. 이런 실정에서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이신 이홍재 교수님의 기고문은 필자의 구상을 개념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기고의 제목은 ‘한국향토문화자료관을 만들자’이고 2014년 5월 28일(수) 동아일보 A29면에 실려 있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 화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유산은 매우 훌륭하다. 유네스코가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도 실은 꼼꼼하고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 덕분이다. 예를 들어 충청도 어느 마을 출신 김 아무개가 스무날 반나절 일했고 품삯은 얼마였다는 것까지 잘 기록돼 있다. 선진국들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와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미국은 독자적인 체계를 갖춰 역사자원에 접근하는 자료를 축적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한다. 지역역사문화네트워크(ALHN)라는 단체까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지역별로 나름대로 향토문화자료관을 갖고 인문 역사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종합적 향토문화자료관이 아직 없다. 그만그만한 자료실들이 역사의 뿌리인 지역 향토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통 계승과 인문정신에 바탕을 둔 전통지식과 지역문화 원천자료를 현대적

인 기술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원천자료를 잘 활용해 문화예술로 꽃피우고, 문화산업으로 과실을 거둬 창조경제로 연결해야 한다.

향토문화지식들이 소멸되기 전에 살살이 찾아내 디지털라이브러리 또는 디지털아카이브로 구축해야 한다. 지역문화의 솟대와 같은 수많은 전국의 문화원들이 이러한 일을 지난 50여 년간 해왔다. 그런데 각각 분산되어 있어 멸실 위험이 있다. 정보화 시스템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새롭게 관리할 필요도 크다. 또한 향토의식 고취와 지역 문화 학술 연구에 알맞도록 재편해야 한다.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은 물론이고 전시, 강좌,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역할, 간행물 발간, 관광체험학습 등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한국향토문화자료관을 만들어야 한다.

향토문화자료는 방치된 것이 많고 대학에서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보관용으로 소장하므로 활용도도 낮다. 그러나 향토문화자료는 지역의 문화 발전에 깊이를 더한다. 이를 국책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역사지식,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참된 문화융성의 길이다.”

이 기고문에서 이교수님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을 요구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의 대상들은 향토문화 전반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이교수님의 소견에 대하여, 전국을 경기도로 한정하고 사업대상을 문화유산으로 축소하여 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간단히 펼쳐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교수님의 아이디어에 대한 원용, 혹은 준용하겠다.

### ○ 먼저, 사업의 기본 방침과 방안은?

우선, 사업의 목적은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고평가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근대문화유산, 그 중에서 소소한 생활문화관련 자료의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적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인척 친우 등이 지녔던 것들을 수집한다. 대상유물로는 월급명세서, 초등학교 성적표, 업무일지,

공무원원증, 추억의 사진첩 등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자료의 수집은 전방위적으로 해 나간다. 현재 삶의 흔적이 묻어있고 멸실의 위험도가 높은 현재 초고령층의 생활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일정의 예산을 마련하여 코베이 등과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또한 도민 대상 공모전을 펼쳐 대대적인 수집을 도모한다. 흔히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진공모전’ 등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셋째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유물 아카이브를 병행한다. 유물의 경우, 기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증절차를 받아 수집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으로 보존한다. 그리고 유물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넷째로,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유물의 수집과 아카이브의 구축을, 중기적으로 전시·강좌·출판을,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의 구축과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을 펼친다.

다섯째로, 기존 자료의 목록화 작업이다. 시군의 향토문화자료관, 국공립 박물관, 개인 박물관, 그리고 개인수집가 등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에 대한 목록화 사업도 병행한다. 자료란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그런 자료들이 공유될 때 참다운 가치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사업주체와 예산은?

본 제안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급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경기도와 기본적인 기획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의 실행은 공공기관이나 학술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이 현실적일 것이다.

한편, ‘경기천년, 새로운 맥을 찾아서’라는 사업이 조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어, 유물의 수집,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그리고 목록화 작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폐건물지 혹은 유희공간 활용

이진복 \_ 열린사회연구소장



## ○ 이 구상의 배경은?

쓰지 않고 놀리는 공간을 유희공간이라고 한다. 유희공간은 공간의 효용성이 상실되면서 발생한다. 폐광은 탄광이나 광산의 채광을 중지하여 채광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폐교나 폐철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기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희 공간을 방치하여 도시 환경과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해 오다가 최근 유희공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문화적 공간이나 새로운 경제 창출의 공간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공간도 하나의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라는 부제가 늘 따라 다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맞이하여 건립된 철도역 겸 호텔이었다. 하지만 1939년 철도역 영업이 중단되고, 그 이후로 반세기 가량 유희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버려진 역에 불과했던 이 건물은 1986년 미술관으로 새로

이 탄생했고 "기차역을 개조하여 만든 미술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은 시행되어 왔다. 사람들이 외면한 쓰레기장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로이 탄생한 난지도, 복개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해 각광받는 문화공간 겸 관광지가 된 청계천, 본래 축구 및 육상 경기장이었다가 품물시장으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동대문 운동장 등이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2014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몽탄역 등 간이역 1개소, 황간버스터미널 등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구)광주극장 관사 등 유휴 공간 3개소 등, 총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

유휴공간의 활용은 단지 문화공간으로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창출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보령에서는 폐광을 이용한 냉풍육장과 석탄박물관이 인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폐광을 이용한 3가지 맛이 키워지고 있어 만세보령의 특산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폐광의 바람을 이용한 무공해 명품 양송이버섯과 폐광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한 깊은 숙성의 맛 보령토굴젓갈, 그리고 폐광의 지하 암반수를 이용한 '성주산 두채(콩나물)' 등이다. 폐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가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선 레일바이크에 인가에 힘입어 문경, 삼척, 곡성, 양평, 강촌, 여수 등으로 지역이 늘어났다. 레일바이크는 폐철로를 재활용한 놀이시설로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시설은?

우선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폐광, 폐교, 폐철로, 폐역사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에 맞는 문화상품이나 경제 창출 공간 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가학광산동굴(광명동굴)은 102년 된 수도권 유일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금속폐광산으로 총 8레벨로 구성된 7.8km의 갱도와 많은 동공, 깊이 275m 규모의 광산을 그대로 간직한 유휴공간 자원이었다. 이것을 광명시는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만3,687㎡(2만8,340평)를 매입하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1차적으로 2012년 7월 1일 개방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의 보강공사를 거쳐 문화와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굴예술의 전당'을 2013년 6월 29일에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3D영화 상영, 오페라 뮤지컬 연극 공연,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큰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동굴지하에서 나오는 암반수로 1급수에만 서식하는 물고기를 기르는 대형수족관도 운영하고 있다. 마야, 이집트 문명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도 열고 있으며 연중 12도인 동굴의 특성을 살려 동굴 와인레스토랑과 저장고를 만들기 위한 공사도 진행중이다. 주한프랑스 대사관의 문화원장은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전시회를 광명동굴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2013년 광명 가학산 근린공원과 연계된 광명동굴의 기본적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가학산 시설)

- 조경시설: 물소리쉼터, 기억의벽, 실개울, 암석원 등
- 휴양시설: 피크닉장, 잔디광장 등
- 휴회시설: 에코어드벤처 등
- 운동시설: 암벽등반코스 등
- 교양시설: 전시장, 야생화언덕, 수목원(온실) 등
- 편의시설: 전망대, 안내소, 카페테리아, 주차장 등

### (광명동굴 시설)

- 교양시설: 갤러리, 공연장, 홍보관 등
- 편익시설: 휴게소, 숙성식품, 카페 등
- 유희시설: 체험시설 등

#### ○ 현재까지 관람객 총수를 보면?

2011년 8월 일부 개방이후 2012년 말까지 광명동굴을 방문한 누적 관람객 수는 11만 5,061명이며, 2013년 6월 동굴예술의 전당을 개관한 이후에는 관람객이 급증해 올 한해만 방문객 수가 39만 5천여 명을 기록해 개방이후 5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광명동굴은 그동안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여 수도권 동굴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광명동굴개발이 될 수 있다.

#### ○ 미래지향적인 광명동굴개발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존의 대형동굴 공연장을 전문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시설을 확충하여 동굴예술의 전당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보강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보강공사시 안전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기대효과는?

광명동굴은 수도권 유일의 광산동굴 관광자원이다. 광명동굴은 단순한 동굴 체험이나 동굴의 냉풍이나 물을 이용한 상품경제 창출만이 아니라,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처럼 동굴예술의 전당이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 ○ 폐광산 이외 폐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경기도 내 폐교부지 면적이 2013년 11월 현재 잠실종합운동장의 11배가 넘

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폐교 70% 이상이 사회단체 등에 임대돼 체험공간 등의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20년 넘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 면적도 전체 폐교부지 면적의 12%에 달하고 있어서 쇠락한 주변지역과 연계된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 ○ 폐건물지 이외의 공공시설이나 대기업의 유휴공간 활용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건물의 대회의실이나 공연장, 또는 대기업의 연수원이나 공연장 등을 시민단체에 개방하고 문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의 ‘노는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돈과 시간, 재능을 기부하던 기업들이 이제 내부 자산인 ‘공간’을 기부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실, 세미나실, 강당을 무료나 실비로 대관함으로써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폐건물지 활용방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 마을 정자목(亭子木)의 부활

장덕호 \_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향촌마을 어디를 가든지 마을의 한 복판 또는 마을 입구에는 한 눈에 보아도 수령이 오래되어 가지가 풍성하고 키가 큰 나무가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나무들은 대체로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 어떤 나무는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자라온 것도 있으며, 나무의 나이는 500여 년부터 200여 년 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나무들을 정자목 또는 당산목이라 부르는데, 느티나무·팽나무·회화나무·소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느티나무가 정자목으로 많이 심어져 있다. 정자목은 마을의 입구나 마을의 중앙에 심어져 마을의 이정표 역할을 하거나 주민의 안녕과 건강을 빌었던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또 그 장소였다.

지금 이러한 정자목들은 대체로 수령이 오래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오래된 수령과 수려한 풍경으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공공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마을의 수호목으로 주민들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도내 향촌마을에는 가옥이나 마을의 모습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그 모습이 많이 변화하였지만, 정자목들은 마을의 중앙부나 입구에 변함없이 잘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근대 사회, 양반이 주도하던 향촌사회에서 소통을 위한 여론의 형성은 크게 두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지배층의 여론 형성으로 이들은 주로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질서의 확립을 위해, 중앙정치무대에 대한 정보교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견수렴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인다.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서민을 비롯한 피지배층의 여론 형성이다. 이들의 여론은 대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교환이나 농사일과 관련된 사항들, 신변잡담 등이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두 계층의 여론 형성을 위한 장소는 어디였을까?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던 장소는 아마 전자의 지배층들은 사랑방이나 경치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亭子)에서 모여 연회를 하거나 은밀한 대화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후자인 서민들이나 피지배층인 경우에는 정자목 아래, 우물가, 빨래터, 저자 거리의 주막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마을의 전통적인 지배구조가 변화하게 되어 기존의 양반을 중심으로 하던 향촌사회의 지배질서는 바뀌게 되었고, 마을의 구조도 변하여 전근대 사회에서의 소통 장소였던 사랑방, 정자, 우물가, 빨래터, 저자거리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향촌마을은 완전히 새 모습으로 탈피하여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오는 우물가나 빨래터에서의 정겨움도 모두 사라지게 되고 마을 사람들

이 모이는 곳은 이제 우물터나 정자목 아래가 아닌 새마을 회관, 구판장, 노인정(경로당)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그렇지만 마을의 모습이 모두 변하였다고 하여도 정자목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세월 만큼이나 모습도 더욱 수려하고 울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마을의 중심으로 주민들을 보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통의 중심지였던 정자목이나 우물가의 외부공간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의 내부공간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소통공간을 다시 밖으로 불러내, 사라졌던 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역동적이고 활발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 ○ 실천방안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자목 주변은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었고 만남의 장소였다. 서양의 소통공간인 광장(프라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그 활용도가 과연 정자목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나 수렴을 할 수 있거나 역동적인 역할인가는 의문이 가며, 또한 앞으로 정자목의 역할도 전통사회에서의 활용도보다 더 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자목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먼저 도내의 마을을 중심으로 정자목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정자목이 있는 마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문학적 조사로서 마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문화재 현황조사, 민속, 놀이, 설화, 민담 등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고 기록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젊은 전공자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마을의 풍부한 인문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 ○ 활용방안은?

다양한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 개발된 정자목을 활용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 정자목 주변을 공원 또는 쉼터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는 장승과 솟대를 제작하고 설치하여 액운을 퇴치하는 전통적 의미를 부여함과 더불어 볼거리도 제공하고, 마을을 소개하는 안내문이나 이정표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설치하여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마을을 찾는 내방객에게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만남과 소통의 장소 : 조성된 쉼터에 주민들 누구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마을의 회의나 공동 행사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마을 살리기 사업에서 활용하는 농촌 방문 행사를 더욱 확대하여 정자목에서의 강의, 가족 단위의 농촌체험 행사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여름밤의 소규모 음악회, 야외 영화상영, 가족 캠핑 등 친환경적이고도 추억이 있는 낭만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을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결집의 장소 : 단오, 백중 등 우리나라 24절에 행하는 다양한 세시풍속을 정자목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그 동안 명맥이 끊기거나 사라졌던 마을 공동체 행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 : 예전에는 모든 마을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또는 대동굿 같은 행사가 있었으나, 새마을 운동이후 대개가 미신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마을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의례 행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자목을 활용하여 성황당, 장승, 솟대와 같은 전통 민간 신앙대상을 만들고 산신제, 대동굿, 동제 등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함으로써 사라진 마을 공동체 행사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을지(誌) 발간 : 정자목 활용을 위해 조사된 각종 인문학적 마을 기록을 발간함으로써 마을 구성원들의 애향심 고취와 마을의 역사 · 문화 ·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향후 마을의 수익 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대효과는?

정자목의 역할 부활은 마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결속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미 상실된 향촌마을의 전통을 재정립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이며, 이 사업을 위해 조사되는 인문학적 마을 조사는 최초로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세밀하게 경기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의 인문학적 정체성과 ‘경기도 마을 만들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마을에서 행해지던 산신제와 같은 마을신앙행사, 민속놀이나 설화 등은 이제 6~70대의 노인 세대에서 단절되어 계승이 멈추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생존시에 하루 빨리 조사되고 기록하는 것은 향후 역사적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 산업박물관의 조성

양훈도 \_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 ○ 왜 필요한가?

한국의 근대화는 고속·압축적으로 진행됐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제 강점기와 개발독재의 과정을 거치며 급속도로 진행된 이 땅의 근대화는 눈부신 성장의 과정임과 동시에 제반 문화의 야만적 파괴의 과정이기도 했다. 경제의 흐름이 바뀌면서 “새것은 좋고 낡은 것은 나쁘다”라는 통념이 깊이 뿌리 내렸고 그에 따라 낡은 것은 모두 부정되고 소멸됐다.

옛것이 소멸되고 새것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는 역사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황없이 진행됐다는데 문제가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소멸해왔다. 문화, 관광, 교육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큰 가치를 지니는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 파괴시킴으로써 문화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국가 차원에서 근대문화유산을 등록해 문화재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관성화한 파괴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보존의 노력은 너무나 미약하다.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쓰면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헐어버리는 식의 문화유산 파괴가 도처에서 진행됐으며,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도로는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경기 천년을 되돌아볼 때 역사는 단절과 비약이 아니라 연면한 연계 속에 형성돼왔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융성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형성한 힘을 이해하고, 미래를 열어갈 지혜를 얻고자 애쓴 시기에 이루어졌다. 경기 문화가 새로운 천 년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되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근대 산업화 시기라는 가까운 과거이자 경기인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땅의 근대화를 일선에서 이끌었던 산업문화는 그 기반이 달라짐에 따라 용도폐기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는 철도와 도자기, 잠업 등 일부 특화된 박물관은 존재하나 지역산업발달 과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박물관은 없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산업중추로서의 경기도에 산업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장의 과정이 속도에만 급급했다는 방증이자, 미래를 열어갈 자세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경기도 곳곳에는 잊혀져가는 근대산업유산이 꽤 많다. 이것들은 그 활용가치를 잃고 망각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일례로 여주 등지에 폐 금광이 여러 개 남아 있다. 하지만 그곳의 광산 중의 하나는 교회가 인수를 해서 기도원으로 쓰

이고 있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게 해 놓았다. 일제 강점기 세계 제5대 금생산국이었던 과거와 그것을 증명해줄 자료들은 이처럼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특히 1960~70년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던 경기도 내 여러 산업 분야의 역사와 자료들 역시 경제구조가 바뀔에 따라 산일되고 말았다. 이들 역사와 자료가 갖는 의미는 경기 천년의 역사에서 결코 작지 않다. 경기도 산업박물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상징성을 가지면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부터 검토해봐야 한다. 수원의 선경공장 자리 등 한 시대를 대표했던 빈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도내 곳곳에는 한때 잘 나가는 산업시설이었으나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장소가 적지 않다. 이들 공간은 사유지이긴 하지만 과거의 입지가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충분히 협의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근대 산업사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경인축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이어져온 경공업 발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70년대말부터 새로운 기반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시급하다. 산업의 변천과정이 경기 천년 문화에서 갖는 함의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에 소장 전시할 역사 자료들을 확보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산업기술 관련 자료들은 교체속도가 빠르는데다 과거의 기계와 부품은 쉽게 버려지고 잊히기 때문이다. 예컨대 60~70년대에 인천 경인라인과 수도권 지역에 가발공장과 가내수공업 형태의 편물공장 관련 자료들은 이젠 자취를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완전 소멸되기 전에 입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 문제로 경기도에 산업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당장에 힘들다면 시군에 흩어져 있는 폐교나 폐역사(군지역 등)를 이용해 소규모의 산업박물관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근대문화유산인 건축물을 보존하고 지역의 산업관련 역사자료를 끌어 모아 작은 박물관을 만든다면 후에 경기도 산업박물관을 만드는데 좋은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대략적인 운영방식은?

일본의 도요타시에 있는 근대산업유산발견관과 산업기술기념관의 경우를 벤치마킹해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잠업취급소로 쓰였던 이곳은 현재 시민의 교양, 학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대산업유산발견관은 근대의 산업과 시가지의 변천, 생활의 변천 등을 주요 테마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대관련 자료와 전시를 통해 시의 특색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근대 건축과 마을의 변천, 다실의 풍경 등을 상시전시하고 있으며 기획전시, 체험 강좌와 강연회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구 도요타방직 본사 공장터에 만들어진 산업기술기념관은 방직·직조 기계기술 및 섬유기계기술, 자동차 생산기술의 변천과정을 기계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초대형 지레, 인력 발디딤차 등이 설치된 테크노랜드에서는 기계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기대효과는?

산업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갈수록 물건 만들기 공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과거로 묻혀버린 채 어디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옛 산업현장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소비에만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견학을 통해 생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의 금자탑을 세운 근로자와 일반인들에게 잃어버린 청춘을 회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며 기업들도 업종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관람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산업박물관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산업화 시기의 한국 역사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산업박물관은 기술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근대 기술이 현대 기술로 발전해온 과정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구가 점차 커질 적정 기술의 개발과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주제 :

## 세계 속의 경기도를 위한 문화유산

7.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_ 이진복
8. 6·25전쟁과 경기도내 관련유적 활용사업 \_ 김낙진
9. 경기 천년 축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축제로 \_ 박상일
10. 개방과 소통의 공간, 한강-임진강-예성강 프로젝트 \_ 조운민



#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이진복 \_ 열린사회연구소장



## ○ 이 구상의 배경은?

국제사회는 갈수록 다문화사회로 진척될 것이다. 현재 재외한국인의 세계 분포도는 1위(170여개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분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3년 1월 1일 기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44만 명으로 도내 주민 등록인구(1209만 명) 대비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전국에는 144만 5631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외

국민주민 거주 비율도 경기도가 3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6만 4709명이 거주하는 안산시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1위를 기록했으며, 도내에서는 안산시 다음으로 수원 4만 1351명, 화성 3만 3162명 순으로 많았다. 도내 1만 명 이상 외국인주민 거주 시·군이 15개(안산, 수원, 화성, 시흥, 성남, 부천, 용인, 고양, 평택, 김포, 포천, 광주, 파주, 안양, 안성)나 되고 있다.

거주 유형별로는 외국인노동자 18만7392명(42.5%), 국제결혼이주자(국제결혼 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6만4404명(14.6%), 외국인주민자녀 4만8138명(10.9%), 외국국적동포 6만2823명(14.3%) 순이었다. 특히 2013년 방문취업제(2007-2012) 기간 만료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이 늘어나 외국인주민 증가 폭이 지난해 11.6%에 비해 3.7%로 크게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23만5404명(53.4%), 여성 20만5331명(46.6%)이며, 외국인노동자는 남성이 70.2%,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이 25만8513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324명(9.2%), 미국 1만7143명(3.9%), 필리핀 1만5876명(3.6%) 순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외국인주민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라는 것이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은 거주 유형별(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상사원, 주한미군 등) 또는 국적별로 구분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한국어, 생활, 풍습에 관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경기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다문화 구성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국내 다문화의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은 상대방과 서로 소통을 하고 경기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험도 행사 참가자들은 화성열차를 이용해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둘러보고 화성행궁을 방문, 한국의 효(孝) 사상과 조선시대 건축양식,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더 세부적으로 확대한다면 용릉의 원찰인 용주사와 용·건릉도 답사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체험에서도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김치 만들기와 한과 만들기 체험을 마련하여 한류와 한식열풍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주한 외국인으로 주재 상사원이나 유학생을 위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10월 문화의 달과 한글날을 계기로 '주한 외국인, 조선의 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종대왕과 관련된 역사 문화 유적에 대한 심층 강연 및 탐방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기록문화 유산인 훈민정음의 소개 등 한글 관련 강연을 하고, 광화문의 세종 이야기 및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세종과 한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갖고, 경기도 여주 영릉을 방문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전반에 대한 역사문화 체험을 하게 한다.

이러한 세계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 포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 결과물로 전시회와 상영회를 국내와 원국지에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 지역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한다.

### ○ 재경기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는?

경기도 지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사물놀이와 한국 무용, 택견, 서예,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한 한국전통문화 유적지 탐방, 지역문화 축제 참여 등 한국 전통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도 있다. 특히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과목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를 경기도에서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재경기 외국인을 위한 경기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세계무형문화유산 포함)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한 단계 수준을 높여 경기도 이외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강릉 단오체험 프로그램이나 외국인을 위한 박물관(전쟁기념관, 6.25 참전 기념비 포함) 역사·문화 체험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기대효과는?

세계문화유산(세계무형문화유산 포함)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세계가 공인한 문화유산으로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따라서 재경기 외국인에게도 밑바닥에는 그 근원이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재경기 외국인과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문화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6·25전쟁과 경기도내 관련유적 활용사업

김낙진 \_ 전쟁기념관 학예연구팀장



## ○ 사업제안의 배경은?

경기도는 옛날부터 국방상 요지였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경기가 수도를 감싸 안고 있는 구조로 인해 적들이 침략하여 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치러지게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는 서울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소위 순망치한처럼 입술에 해당하는 경기도였다. 따라서 경기도 일대에는 전통시대의 군사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에도 중요한 전투가 경기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오히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낙동강 일대보다도 경기지역에 더 많은 전투지역

이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참전 이후 유엔군관련 전투유적지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 전적지는 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러한 전적지의 존재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주요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 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그치고 각 기념관과의 연계운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고, 6·25전쟁이라는 대주제로 묶일 수 있는 기념관끼리 효율적인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추가로 기념관이 지어지면 충분한 안보관광 벨트를 만들어 경기도만의 특화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기념관’ 사업을 제안한다. 현재 경기도 내 6·25전쟁관련 전적지나 기념탑, 기념관 등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관람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을 모아 관람시킬 수 있는 여건이나 흥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적지는 체계적으로 흥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잘 개발하면 충분한 외교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전국들의 관심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연계하여 외교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호국보훈의 달에 참전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념행사와 격전의 현장 답사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이다.

### ○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벌어진 주요전투의 전적지와 기념비, 기념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전투에 대한 정리, 전적지와 기념비의 관리 실태, 운영주체 등을 조사하고, 각종 기념관·박물관의 실태를 연구하여 이들을 활용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그것과 맞물려 스토리텔링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하려면 먼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는 6·25전쟁 참전기념비와 기념탑은 대략 77개 정도이다. 그리고 6·25전쟁 주요 전적지에 세워진 기념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3개 정도 되는 것 같다. 동두천의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오산 죽미령 전투를 다룬 오산초전기념관, 고양현충기념관 등이 대표적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 못지않게 중공군 참전 이후 경기도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들을 기억하는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경상도 지역보다 적은 것 같다. 유명한 용문산전투, 설마리 전투(영국군), 지평리 전투(프랑스군), 김양장리 전투(터키군), 봉일천 전투, 문산전투, 수원전투 등 많은 전투들이 있었다. 대규모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당장 짓기 보다는 주요전투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예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경상도지역의 낙동강전투기념관 사업들을 보면 국가보훈처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앞서 말했지만 경상도 지역보다 더 많은 주요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신청하면 사업비 가운데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념관의 규모도 대규모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투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기념관이 더 적합할 것이다. 예산면에서나 관리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리고 모든 전적지에 기념관을 다 세울 수 없으니 주요 거점 전투지역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 이 지역을 다루는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들 기념관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한군데 다 모아놓은 전시관이 아니라 소위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을 역사적 현장에 만든다는 개념이다.

스토리텔링 개발과 체험 학습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 발간도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6·25전쟁이라는 무거운 주제와 솔직히 눈을 즐겁게 하는 답사지

는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제기한 ‘작은 기념관’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적지 답사는 의미부여가 중요하고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내실 있을 것이다. 출판물을 만들어 일반 서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국보훈의 달 등에는 특집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엔참전국 가운데 주요 전투 부대 파병국의 참전기념탑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관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학생단체 또는 보훈단체, 참전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볼 수 있다. 필요시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격전의 현장’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다.

주말을 이용하는 분기 단위 또는 반년단위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어 6·25참전 격전지를 체계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단순히 현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학교나 공공기관의 강의실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역사강의와 곁들여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더욱 더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한다.

참전국 출신 다문화 가족 초청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필리핀 등 참전국 출신의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필리핀군 전적지나 기념탑 등을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역사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소속감과 일체감에 도움을 줄 것 같다. 6·25전쟁 때 자국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과 역사를 공유하는 체험을 통해 더욱 더 긴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적지 탐방을 유형화하여 몇 가지 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역별로, 또는 주제별로, 국가별로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개 코스 정도로 나누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박물관 등 관내 기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원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들을 통해 각 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학습 코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

전적지 주변의 군대와 연계하여 부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문화단체, 보훈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경기도 내 지자체, 국방부, 보훈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운영프로그램의 동의 등을 얻어내야 한다. 사업 목적에 대한 인식은 예산상에서나 장기적인 운영에 있어서나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적지가 일반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군사통제구역 안에 있을 경우 국방부 등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예산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 경기도 내 주요 전적기념물

- |                      |                        |
|----------------------|------------------------|
| 1. 3.8선 돌파 기념비       | 14. 구리시 현충탑            |
| 2. 6·25참전 소년전차병기념비   | 15. 그리스군 참전비           |
| 3. 6·25참전호국기념비       | 16. 기지리 6·25전투진지(방카)   |
| 4. 6·25학도병 참전기념상     | 17. 김포시 6·25참전유공자탑     |
| 5. 가평군 현충탑           | 18. 김풍익중령전적비           |
| 6. 가평지구 전투 전적비       | 19. 남양주시 현충탑           |
| 7. 가평학도의용대참전기념비      | 20. 내촌면 6·25참전 전사자 추모비 |
| 8. 고근홍대령 전승비         | 21. 도평리 수복기념탑          |
| 9. 김승철중위전사지          | 22. 독수리 유격대 전적비        |
| 10. 고양6·25참전기념비      | 23. 동두천시 현충탑           |
| 11. 고양시 현충탑          | 24. 무공수훈자 호국공적비        |
| 12. 광명시 호국유공자 공적비    | 25. 무공수훈자의 탑           |
| 13. 구리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 26. 62 백운의 혼           |

27. 부천시 현충탑
28. 소위 김만술
29. 수복기념탑(포천군)
30. 안성시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31. 양주시 6·25참전유공자비
32. 양주시 현충탑
33. 양평군 충혼탑
34. 양평군 현충탑
35. 연천군 자유수호 무공수훈탑
36. 연천군 현충탑
37. 연천군 6·25참전기념탑
38. 영연방 참전기념비
39. 용문산지구 가평지구 전적비
40. 용문산지구 전적비
41. 용문산지구 전투 전적비
42. 위령비(안변동산)
43. 유엔군초전기념비
44. 육군첩보부대 서부 제1지대 전공비
45. 육군첩보부대 제1지대 전공비
46. 육사생도 6·25참전 기념비
47. 의왕시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48. 의정부시 6·25참전유공자기념비
49. 의정부시 현충탑
50. 임진강지구 전적비
51. 가평지구전투 전적비
52. 참전비(양평군)
53. 충현탑(덕산리)
54. 충혼비(특전부대)
55. 충혼탑(옥계리)
56. 태극단 반공유적지비
57. 태극단교사추모비
58. 파주군 징집제1차 6·25참전비
59. 파주시 충현탑
60. 파주시 충혼탑
61. 파주시 현충탑
62. 포천시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63. 포천시 현충탑
64. 학도병 6·25참전기념비
65. 학도의용군 파주지대  
6·25동란참전 기념비
66. 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념비
67. 한미해병참전비
68. 해병 제1상륙사단 전공선양비
69. 해병대 김포지구 전적비
70. 해병대 북한강지구 전첩비
71. 해병대 수도방위기공비
72.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
73. 현충탑- 경기 광주
74. 현충탑(오산시)
75. 현충탑(평택시 비전동)
76. 현충탑(평택시 서정동)
77. 호국 6·25참전 유공자상 및 탑

# 경기 천년 축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축제

박상일 \_ 경인일보 기자



## ○ 제안의 배경은?

경기 천년의 주인공은 경기도민들이다. 경기 천년에 즈음한 축제는 당연히 경기도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경기도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경기도민들에게 ‘무언가’가 남겨지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만일, 경기 천년에 즈음한 사업들이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리되거나 준비되고, 도민들이 정해진 곳을 찾아와 무언가를 보고 돌아가는 ‘일방통행식’ 사업에 그친다면, 경기 천년은 그저 특정한 때를 맞아 진행되는 ‘커다란 이벤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기 천년은 경기도민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거주하고 있는 이곳 경기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함께 천년을 기뻐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함께 모여 함께 즐거워하고 감동하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커다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난 천년의 역사와 그동안 남겨진 수많은 유산들이 있다. 1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모두가 함께 맞이해야 할 미래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지 않다. 방대한 시간속에 흩어지고 뒤엉켜 제대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놓여 있다. 그 흩어지고 뒤엉킨 것을 풀어내 차근차근 정리하고, 정리된 것에서 천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경기 천년 축제의 시작이다.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 경기 천년 축제를 경기도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기 천년 축제는 만들어진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면서 그 속에서 자부심과 동질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커다란 장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할 일은 흩어진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토록 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도민들에게 잘 전해주고, 도민들이 천년을 기뻐하며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축제를 열도록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 무엇을 할 것인가?

#### - 콘텐츠가 중요하다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는 어떤 곳인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사실 웬만한 관련 전문가라고 해도 ‘경기도는 이런 곳이다’라고 차근차근 정리해 이야기해 주기가 쉽지 않다. 특히, 경기도의 지난 천년을 되돌아보며 경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대답이 어려워진다.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이런 이유로, 의미 깊은 경기도 천년을 맞이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기 천년 지침서’(가칭) 편찬을 제안한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난 천년을 정리하는 ‘잘 정리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 콘텐츠는 우리가 사는 곳의 천년 역사를 돌아보며 방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큰 흐름으로 알기쉽게 설명한 ‘경기도 지침서’이자, 늘 곁에 두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경기도 이야기책’이고, 누구나 필요하면 좋은 내용을 찾아내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활용 참고서’이고, 천년을 맞아 후손들에게 물려줄 ‘천년의 기록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다양한 전달방식과 활용방식을 고려한다

‘경기 천년 지침서’는 경기도가 천년을 맞는 2018년보다 일찍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 경기 천년 축제가 열리기 전에 이 콘텐츠가 경기도민들에게 전해져, 도민들이 천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기뻐하며, 콘텐츠의 내용 속에서 스스로 축제에 동참할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침서의 기본은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형태다. 긴 역사의 흐름을 짚어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첨부하고, 중요한 사건에는 의미를 풀어주고, 적절한 각종 통계나 그래픽 및 이미지 등을 덧붙인다. 역사적 사건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별로 꼼꼼한 살펴보기가 돼야 한다. 콘텐츠의 눈높이를 어린이와 학생, 성인, 노인을 포함한 일반 경기도민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경기 천년 지침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공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료실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원문을 공급하고, 모바일에서도 누구나 쉽게 받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앱이나 디지털북 형태로도 제작한다. 디지털 콘텐츠 원문 뿐 아니라, 원문을 변형해 요약본과 어린이본, 중고등학교 교재본, 시청각본, 장애인본 등 다양한 형태의 정

리본을 만들어 책자와 디지털북 형태로 학교와 도서관 및 경기도민들에게 공급한다. 이를 교재로 교육청(학교) 및 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경기 천년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제안한다.

#### – 콘텐츠를 기반으로 축제를 준비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보급된 콘텐츠는 경기 천년 축제의 내용적 기반이 된다. 경기도는 다양한 경기천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도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토록 한다. 축제 기간동안 경기 천년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대회를 마련하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동호회와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기 대회와 전시회, 글쓰기 대회와 문학 공모, 춤과 연극 공연, 노래(창작곡) 공모 및 부르기 대회, 영화제, 여행사진 공모, 스토리텔링 공모 등등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은 수없이 많다.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 경기 천년 콘텐츠를 결합해, 천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스스로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한다.

이와 함께 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경기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별도의 ‘천년 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제안한다. 임진각과 DMZ, 평택항, 한강, 화성 공룡알화석지, 전곡 구석기유적지와 박물관 등등 시대별로 내용별로 특기할만한 곳이 많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 역시,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기 천년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돼야 한다. 각 지자체와 시민(군민)들도 경기 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 어떻게 준비하나?

도민들이 참여하는 천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경기 천년 지침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컨텐츠가 없이 이뤄지는 축제는 의미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기획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급히 경기 천년 컨텐츠 만들기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 이미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사업이다. 빨리 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컨텐츠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진과 취재팀과 편집팀을 구성해야 한다. 적어도 2016년 초·중반까지는 기본 컨텐츠가 완성되고, 2016년 말까지는 공급 방식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7년에는 경기 천년 컨텐츠가 공급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사업기획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8년을 전후해 진행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기 천년 축제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민하고 준비하면 된다. 내용이 있다면 형식을 만드는 것은 훨씬 빠르고 쉽다.

### ○ 기대 효과는?

경기도의 천년을 정리한 컨텐츠(경기 천년 지침서)는 경기도가 천년을 맞아 경기도민들을 위해 마련한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경기도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컨텐츠 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천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학교 교육이나 시민 교육에서도 경기천년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다.

경기 천년 축제가 기획돼 진행되면, 경기도민들과 각종 동호회, 단체 등은 그 속에서 참여할 사업을 찾아낸다. 또는 도민들이나 단체들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내용은 이미 만들어져 제공된 컨텐츠에서 찾아낸다. 훨씬 재미있고, 내용도 풍부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될 것이다. 각 참여자들이 풍성한 내용을 갖고 축제에 참여할 때, 축제 자체가 풍성해

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아울러 꼭 경기 천년 축제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이든 이후든 경기도를 소재로 한 무언가를 제작할 때 경기 천년 지침서는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이다.

# 개방과 소통의 공간, 한강-임진강-예성강 프로젝트

조윤민 \_ 다큐멘터리 작가



## ○ 이 구상의 기본개념과 방향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해역과 해안 지역의 역사문화를 국제성과 개방성이란 시각에서 조명하는 학술연구와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방과 소통의 경기’, ‘세계로 열린 경기’라는 오랜 전통을 확인하고 21세기 경기도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드높인다. 나아가 이 지역을 평화의 공간이자 남북 화해를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교두보로 조성하고, 21세기 한반도의 평화 중심축으로서의 경기도를 널리 알린다.

## ○ 이 구상의 배경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지금의 경기도 북서부 해안 지역은 역사 이래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와 문화의 관문이자 통로였다. 이곳을 통해 중국·일본·동남아·아라비아 등 세계 각지와 한반도의 문물과 문화가 교류되었고, 외교와 무역, 경제 활동이 전개되었다. 신라는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한 이후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고려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와 개성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을 펼치며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국의 문화를 전파했다. 이 지역은 고려 경제와 문화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드러내는 중심 장소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조세운반선이 통과하는 해로의 요충지였고, 한편으론 19세기 서구 열강과 일본의 무력과 문물이 밀려들어 충돌하던 격전과 갈등의 장소였다. 지금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분단의 최전선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역사흐름이란 시각에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수로와 인근 지역의 성격을 한마디로 묶으면 ‘국제성’과 ‘개방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와 세계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자 문명 융합의 전초기지였으며, 주변의 문물을 흡수해 다져서 외부 지역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문화의 거점지역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 배경을 바탕으로 한강-임진강-예성강 접점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정치외교·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정리하는 학술사업을 펼친다. 이와 관련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영상·출판·모바일·인터넷 등 다분야에 걸쳐 경기도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업을 마련한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사업의 큰 줄기는 ‘경기 지역 역사와 문화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드러내는 제 분야의 아이টে으로 잡되, 특히 고려시대에 주목한다. 또한 한반도 내에서의 한

강-임진강-예성강 접점 지역의 역할도 놓치지 않는다. 사업은 크게 보아 학술 문화연구 · 문화관광사업 · 홍보사업으로 나뉜다.

#### - 세계 속의 경기 : 고려의 개방성과 국제성 재조명

‘고려, 고려문화 - 그 개방성과 국제성’이란 주제로 정치외교 · 경제 · 문화 분야에 대한 학술문화연구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그 결과물은 도서출판물과 인터넷 및 모바일 정보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 고려와 고려문화의 개방성과 국제성 관련 학술문화연구 실시
  - 국제항구 벽란도와 개성상인: 고려의 대외 무역과 상업
  -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심을 지향하다: 고려의 팔관회
  - 유물로 본 고려문화의 국제성과 개방성
  -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문화권의 성격과 그 역할
- ▶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지역 문화유산전시회 마련
- ▶ 경기도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재조명하는 국제심포지움 개최

#### - 세계인을 품다 : 경기 지역의 귀화인과 귀화 성씨

우리나라 성씨 280여 개 가운데 130여 개는 귀화 성씨로 보고 있다. 대상 지역과 인종도 중국 · 일본 · 베트남 · 몽골 · 여진 · 위구르 · 거란 · 흉노 · 인도 · 네델란드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이 귀화인과 귀화 성씨는 전통사회의 개방성을 드러내는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려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원칙을 가졌는데, 귀화인을 통해 이질적인 문물을 흡수해 이를 자국 문화발전의 한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평해진다.

경기 지역에 정착한 귀화 성씨로는 위구르인 장순룡을 시조로 하는 덕수 장씨(德水 張氏), 여진족인 이지란이 시조인 청해 이씨(靑海 李氏), 베트남 왕족인

이용상을 시조로 하는 화산 이씨(花山 李氏)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지역에 정착한 귀화인과 귀화 성씨 후손의 세거지와 계보를 정리하고 주요 인물의 활동을 살피는 학술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물은 대중도서로 출판한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역사적 바탕을 마련한다.

#### -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곳 : 조강(祖江) 문화권 조망

한강과 임진강이 김포 북단에서 만나 합쳐지고, 이 강줄기는 개성을 지나온 예성강까지 받아들인 뒤 마침내 서해로 빠져나간다. 이 큰 물줄기가 한반도 중부 내륙의 모든 물길을 담아내는 ‘할아버지 강’, 바로 조강(祖江)이다. 태백산에서 시작해 500여 km를 흘러온 한강이 이 지역에서 바다와 만나고 나아가 든다는 유래를 갖고 있다.

전통시대에 수운과 물류의 중심지였던 조강 유역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조강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조사 및 학술 심포지움 개최
- ▶ 근현대기 조강 지역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대한 구술기록화
- ▶ 조강 문화권 관련 문화유산전시회 추진
- ▶ 조강 역사문화전시관 건립

#### -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문화권 답사길 조성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접점 지역을 걸으며 그 역사문화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답사길을 조성한다. 기존 평화누리길을 활용하되, 이와 어긋날 경우 연장 답사길과 샛길을 만들고 관련 지역이나 공간에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해 운영한다. 북한 지역의 경우는 ‘장기 희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 –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문화권 관련 영상물 제작과 도서출판

경기 지역의 개방성과 국제성이란 테마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지역을 다루는 3~4부작 영상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 결과물을 대중도서로도 출판한다. 이와 함께 2~3분 분량의 소주제별 영상물을 다수 제작해 모바일 및 인터넷 시리즈 영상물로 활용한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조강 문화권 조명’은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사업’ 및 ‘조강물길이야기공원 조성사업’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의 ‘DMZ 발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본 사업을 조망해 그 내용과 성격을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 미래유산 발굴 제언(경기 천년 새로운 맥(脈)을 찾아서)의 “개성문화권 문화유산 종합활용 계획”을 함께 추진할 경우,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 대략적인 운영방식은?

사업 수행주체 구성과 인력관리, 사업진행 방식 등 기본적인 사업운영 방식은 기존 유사 사업의 관례에 맞추어 선택한다.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문화권 답사길 조성’사업과 ‘조강 문화권 조명’사업의 일부 프로젝트에 강화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역 연계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문화권 답사길 조성’의 북한 지역 답사길은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이 해결돼야 가능하다. 이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되, 조성 이

전에는 조강 지역 관련 장소에 모형 답사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 ○ 기대효과는?

본 사업을 통해 한강-임진강-예성강 접점 지역이 가진 개방성과 국제성을 드러냄으로써 세계로 향하는 21세기 경기도의 전통기반을 다지고, ‘교류와 소통’, ‘융합과 화합’의 경기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 문화권의 한 핵심을 이루는 한강-임진강-예성강 접점 지역의 역사문화사업을 통일을 대비한 문화사업의 하나로 삼음으로써 ‘평화를 조성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도’라는 이미지 창출에 일조할 것이다.

\* 김성태가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을 조운민이 체계화·구체화하였다.



제3주제 :

## 경기 천년과 문화유산을 통한 공감나누기

11. 천년 경기 100선 \_ 이광표
12. 개성지역 불교유적의 조사와 활용 \_ 최태선
13. 개성문화권 문화유산 종합활용 계획 \_ 박성진
14. DMZ 내 생태계 보존과 활용 \_ 임봉구
15. 동아시아 평화대학교 설립 \_ 양훈도



# 천년 경기 100선

이광표 \_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



## ○ 이 구상의 배경은?

경기 천년이라고 하면 우선 먼저 지난 천년의 흔적을 돌아보는 일이 떠오릅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천년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취지이자 방향이겠지요.

이런 취지에 맞추어 그 천년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정해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이 제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00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10개는 너무 적고, 그래서 100개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 ○ 무엇을 선정할 것인가?

우선 이 100선을 통해 경기의 천년 역사를 짚 훑어내려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선만 보아도 그것을 통해 천년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일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시대별로 내려오면서 100선을 선정하고 동시에 중요한 테마를 몇 개 따로 정해 이에 맞춰 100선을 보완하는 방식이 무난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유형과 무형 포함),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흔적, 생활사의 흔적 등으로 하되 고려, 조선, 근대(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로 시대를 나누어 대상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려청자, 대장경, 개성 선죽교, 파주 용미리 마애불, 하남 춘궁리 철불, 팔관회와 같은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 용건릉, 화성 용주사, 용문사 은행나무, 남양주 다산 정약용 생가와 같은 조선시대의 문화유산, 6.25전쟁, 파주 임진각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 파주 장단리 증기기관차, DMZ와 대성동 사람들, 임진강의 황복,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등 근현대사의 생활문화유산 등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시대와 경기 지역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각별히 고려할 사안은 경기 지역만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수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라는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강 유역을 포함한 경기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치열한 정치적 군사적 각축장이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이런 곳은 없습니다. 경기지역만의 특징입니다. DMZ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한강유역을 포함한 경기지역은 삼국의 각축장에서 결국 삼국 통일로 나아갔고 이후 갈등을 딛고 고려 건국의 토양이 되었으며 새로운 나라 조선의 탄생을 잉태한 곳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상처를 딛고 통일과 희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경기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자랑입니다. DMZ도 지금은 상처이지만 분명 통일과 희

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부각시키는 100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갈등과 상처가 남아 있다는 것은 경기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경기는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경기 천년 100선’은 궁극적으로 “경기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의미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구체적으로 선정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천년이라는 오랜 역사의 흔적을 시각적인 대상으로 찾아내는 것이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즉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허심탄회하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두 번의 논의로는 부족할 겁니다. 다채로운 연구와 토론, 현장 조사, 공동 작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만의 논의에 그치지 말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0선의 선정을 위한 토론 자체가 하나의 시민 축제가 되고 하나의 연구 작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녀노소나 계층 직업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경기 천년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 과정은 어찌 보면 경기 천년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논의 자체도 텍스트와 영상의 기록으로 남겨 이 역시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 ○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천년 경기 100선’을 선정해놓으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책이나 영상으로 제작해 널리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기의 역사와 문화,

그 가치를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자 형식을 생각해보면,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버전과 대중적인 버전 두 가지로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 버전은 각 항목별로 매우 자세하고 입체적인 설명을 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어느 대상에 대한 설명 하나만 읽어도 그 대상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삶과 문화, 정치경제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있는 학술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를 토대로 대중들을 위한 버전, 어린이를 위한 버전 등 다양한 버전으로 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책과 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100선을 모티프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100선을 주제로 경기도박물관 등지에서 기획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이를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의 전시와 체험행사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소재로 공연, 동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 일선 학교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구상의 기대효과는?

이 100선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다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낯선 100선을 통해 우리는 경기 천년을 새롭게 만나게 되겠지요. 그것은 그동안 몰랐던 경기의 이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경기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경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경기의 미래를 새롭게 꿈꿔볼 수 있는 의미 있고 흥미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천년 경기 100선’은 100선으로 보는 경기 천년의 역사입니다. 경기 천년 역사의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의 지난 천년을 이해하려면 이 100선을 보게 하라.” 이 100선은 충분히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성지역 불교유적의 조사와 활용

최태선 \_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 ○ 이 구상의 배경은?

통일관련 국가정책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의 북한문화 유적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도 미리 정리되고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하나의 행정구역이 남, 북체제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단점도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유적의 정비, 활용이 없는 북쪽의 문화권을 확보하여 지금까지의 문화관련 노하우를 통해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북쪽의 문화영역 중에서도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의 문화정비’는 고려시대의 문화양상을 21세기적 문화관점과 연구방법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매력적

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남쪽의 경기권역(지금은 단순히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권역이지만)의 강화가 고려 국난기의 제2수도였다는 점과 관련지어 고려문화의 전반과 후반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의에서 당시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 그 중에서도 국가 도성의 불교 문화 양상을 점검, 조사, 활용한다는 점은 고려문화 전반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개성지역 및 개성 중심시기의 불교유적을 점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적으로나 정치문제로 검증하기 힘들었던 문화고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역사고증을 국가와 함께 지자체의 주도로 문화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된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개성에는 고려가 도읍하면서 왕실에서 주도한 10개의 사찰이 건립되어 있었으며, 이들 사찰은 당시 국가문화의 주요한 역할들을 수행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고려 출판문화의 결정체인 초조대장경판이 흥왕사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사원들이기도 하다. 불교사상과 문화의 핵심공간은 사찰(사지)인 만큼 이들 사지들에 대한 역사 사건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복원 정비한다는 것은 곧 고려 불교전반을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사료적 증거를 통한 검증작업이기도 하다. 중장기적 계획하에 이들 고려 초기 10찰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지표조사, 시·발굴조사)를 통해 문헌과의 고증작업을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고려 불교문화의 사건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대장경의 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두차례의 대장경 판각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적지의 검증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고려대장경관련 주요 유적은 ①조성사찰(흥왕사 중심), ②초기 봉안사찰, ③마지막 봉안사찰(대구 공산 부인사), ④재조대장경 조성사찰(강화 대장도감, ⑤

남해 분사도감), ⑥초기 봉안처(강화), ⑦마지막 봉안사찰(해인사)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이 중 마지막 봉안처인 대구 공산부인사와 경남 해인사, 분사도감을 제외하면 모두 경기권에 그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유적에 대한 정확한 위치비정이나 규모는 물론 대장경관련 유적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 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 대장경 조성유적을 연결고리로 한 고려 불교문화의 검증과 정비사업을 개성과 경기권의 주요유적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조사프로그램을 통해 그 실체를 완성한다면 고려문화는 물론 세부적으로는 ‘출판, 서지문화의 산실 경기도’라는 문화컨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고려문화의 중심인 수도를 모두 경기지역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문화행정을 유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기획 안)

#### 1. 개성십찰의 현황 및 세부조사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의 대비 및 검증)

#### 2. 흥왕사 중심의 고려 출판문화 검증이라는 세부사안을 수립, 검증

- 강화 선원사 유적, 나가서는 한반도 대장경 유적과 연계 및 검증

#### 3. 고려 대장경문화의 실체를 규명, 정비

- 경기권에 고대 출판문화박물관 건립 및 문화활용으로 확장 연계

.....

이러한 연구 사업을 통해

A. 역사적으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문화 연결고리 확충.

B. 교육, 홍보, 활용을 위한 컨텐츠 자료를 제공 - 문화사업으로 연계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이러한 사업이 어느 단계에 오르면, 출판이라는 문화요소를 실현하는 박물관을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세계의 출판역사 속에서 한국출판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문화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에 기록문화를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홍보하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없다는 점은 문화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가 앞장서 추진할 수 있는 이 유리기도 하다. (현, 출판단지와 연계 과거와 현재의 기록, 출판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 요소)

### ○ 기초조사의 운영방식은?

우선 유적지 조사를 위한 운영은 1~2개의 기관만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목표점을 설정해 주고 이에 맞는 유적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조사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조사 방향성에 맞게끔 얻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활용을 위한 다각도의 운영(박물관 건립, 홍보, 책자 간행)은 순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우선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개성지구의 불교유적 조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수원과 개성간의 문화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유적조사에 접근하는 방안을 찾고, 공동조사시에도 조사의 목적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 기대효과는?

고려시대의 기록문화 또는 불교문화의 검증은 물론 이들을 홍보 교육함은 물론 문화컨텐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개성문화권 문화유산 종합활용 계획

박성진 \_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 이 구상의 배경은?

개성은 한반도 중세 통일왕조인 고려의 수도로 고려가 건국된 다음 해인 919년부터 조선이 건국된 후 한양으로 천도한 1394년까지 한반도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다. 고려시대 당시 개경(開京)· 송도(松都)· 송경(松京) 등으로 불렸던 개성은 고려의 모든 문물이 모여들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흔적을 개성과 그 일원의 다양한 유적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성지역의 문화유산은 북한 정권의 수립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왔다. 특히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연결해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북한 정권에 있어 개성 일원에 위치하는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은 평양에 집중되어 있는 고조선·고구려

문화유산과 함께 정권 차원의 관심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는 12개의 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 유적은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만월대, 개성 첨성대, 고려 성균관, 송양서원, 선죽교, 표충비, 왕건릉, 7릉군, 명릉, 공민왕릉으로 ICOMOS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유적들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북한의 제안과 ICOMOS 차원의 권고가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개성역사유적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보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문화재 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북한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은 국제적 수준의 보호·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와 함께 진행된 남북협력사업으로 일부나마 진행된 바 있다. 남한의 전문 인력에게 개방된 북한문화재는 그 존재가 확실하게 알려졌다. 비공식적이지만 남한 학계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간헐적으로라도 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함께 업무를 추진한 북한측 전문가들의 경우 함께한 남한의 학자들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2008년 이후 소강기로 접어들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러나 경색과 이완이 반복되는 남북 관계의 특성상 현시점에서 북한문화재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사업이 재개될 시점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때는 지금보다 더욱 높은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 질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시 시작될 남북 간의 문화재 교류는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 진행된 문화재 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며,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남북 간 문화재 분야의 안정적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민족공동 자산인 북한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안정적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문화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남북 정상간 이루어진 10.4 선언에 따른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개최가 합의됨에 따라 10.4선언의 이행이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문화재 분야의 남북 협력은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향후의 변화를 예측하여 이후 발생 가능한 오류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문화재와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해당분야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와 각 사업 주체 간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조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 문화재 교류 및 북한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설계를 통해 향후 정책적 과잉 혹은 공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련 정부 부처간의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과 정부(중앙/지방)를 아우르는 ‘남북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남북 문화재 교류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남북 교류 사업의 대상 선정과 예산 편성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성과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개성지역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과거 한국전쟁 이전까지 개성이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개성한옥에 대한 보존과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뿐 아니라 경기도는 과거 농업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방면의 대북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남북교류를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현 시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개성지역은 평양과 함께 고도(古都)로 인식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정권 차원의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어 북한 내 타 지역의 문화유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열정만이 아닌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북한의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의 기준으로 관리되어지던 개성지역의 유적들은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보다 강화된 기준의 보존환경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미 북한측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과정에서 명확해진 부분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고려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성 성균관을 대신하여 2015년까지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 개성 성균관을 본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성 성균관의 박물관 전용으로 인한 훼손 문제는 남한의 문화재 전문가를 비롯한 개성관광을 다녀온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새로운 박물관의 건립은 북한 내부의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ICOMOS 측의 박물관 전

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 새롭게 발표된 「문화유산보호법」의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2013년 9월에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침을 확정·승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ICOMOS의 평가서에서는 ‘개성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유적인 남대문 북서쪽의 한옥 군락(통칭 ‘개성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법적 체계 속에서 엄격한 보호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 서술하고 있어 2013년 6월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개성지역 일대의 문화재와 관련된 보존과 조사 여건은 이전과는 다른 국제적 표준에 준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개성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의 단체 및 기관에서는 이러한 북한 내부의 문화재 관련 체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준하는 보존과 조사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DMZ 내 생태계 보존과 활용

임봉구 \_ 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장



## ○ 구상의 배경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1년이 되는 해로, 한 때 처절했던 인간 간의 살육으로 초토화 되었던 DMZ는 긴 시간동안 사람의 간섭이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난 곳이 되었다. 이제 DMZ는 인간과 자연환경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DMZ는 248km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각각 2km 씩 한계선을 설정한 중간 지역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실제적 상대로 존재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남과북의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에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신뢰를 싹틔우

고자 하는 취지이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남북한 대치는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DMZ의 '진정한 비무장화'는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결과로서 세계평화공원이며, 세계평화공원이 DMZ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은 물론, 전쟁에 가담했던 미국, 중국 등 모든 국가들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교류·협력하는 평화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의미로서 교착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매우 고무적인 시각의 전환이다.

그러나 'DMZ 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평화도 포괄하여야 하며, DMZ내에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당국과 세계 그리고 생태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생하는 신뢰프로세스로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DMZ가 생태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조명되는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나 세계 환경자본인 DMZ 가치에 부합하는 일관된 생태적 기준이 'DMZ 세계평화공원'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시점에서 DMZ의 자연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적 활용을 위한 제안의 의미와 목적이다. DMZ는 우리 현세대의 자산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줘야 할 유산으로 새천년 경기도와 같이 DMZ 세계평화공원이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동북아의 평화협력, 지구촌의 평화·번영과 DMZ 생태계 공생의 신뢰프로세스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성장과 통일준비·촉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되었으면 한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우선 공간의 접근 방안이다. 기존의 통일부나 환경부 및 지자체 접경지역에서는 시설을 구상하고 만드는 일차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대부분의 용어가 생태공원조성, 관광개발 등의 단위 공간 개발 시각이나, 경기천년에서는 DMZ

전체를 세계평화공원‘지정’이라는 대상과 축의 3차원적 개념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축 개념에서 김포, 파주 등의 서부지역 연천, 철원 등의 중부 지역, 양구, 고성 등의 동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생태와 평화의 관점에서 공간의 분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의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던 김포~파주~연천 지역의 관광자원을 재구성하는 개발 중심의 생태에 맞춰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과는 달리 세계평화공원의 콘셉트는 ‘생태’보다는 ‘평화’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어 ‘생태’나 ‘지역개발’이 아닌 북한과의 핵심정책으로 무게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추진 장소도 남한 내 지역 벨트에서 남북을 아우르는 특정 지역의 공원 개념으로 바뀌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지정은 주체가 지역에서 국제화되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개발하는 개념에서 남북뿐 아니라 유엔과 미국까지 포함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남한 단독으로 시행하는 대북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남북한의 신뢰 회복과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인간에 의해 분단된 61년이 새로운 자연생태를 만들어 낸 DMZ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핵심공간이다. 종축의 백두대간, 횡축의 DMZ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축으로 동북아 생태축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DMZ 내의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경관 다양성 등 DMZ 생물다양성을 활용해 생태관광지로 지정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DMZ의 숲이나 강 그리고 초지는 자연 혹은 반자연 서식처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축 상의 생태중심지 혹은 핵심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DMZ 그 자체의 생태적 가치도 높지만 유라시아 생태축의 살아있는 실험실로 분류돼 큰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DMZ는 남북생태계를 점·선·면으로 연결하는 생물다양성 핫스팟(hotspot)이다.

두루미, 어름치, 수달, 산양이 DMZ 철책 안에서 남북을 오가며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생물종을 활용하여 생태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DMZ 내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생물다양성이 높은 자연 지역으로는 서부의 사미천지역과 연천·사미천지역, 중부의 북한강 민들레 벌판자연을 포함하는 철원지역 그리고 동부의 고성·남강지역 등이 포함된다.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한국 주도하의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통해 평화공원 지정의 의지와 실천을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남북협력과제로는 DMZ에서의 남·북 생태조사를 위한 공식적인 모니터링 메카니즘의 합의이다.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수행되는 DMZ 정책이나 전략은 DMZ의 미래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생물권 보전지역 통합모니터링(BIRM) 프로그램”이나 유엔기구의 하나인 “세계보전 모니터링센터(WCMC)”와의 협력 하에 남측과 북측에 다같이 적용될 수 있는 DMZ환경생태지표(Environmental Ecological Indicators)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는 지구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비정치적 사안이다. 인류의 평화와 품격이 있는 범지구적 환경·생태 복지의 실현에 기여하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유라시아 생태공동체의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설악산-DMZ-금강산으로 이어지는 평화·생태 벨트 구성도 유라시아 생태축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궁예도성, 홍왕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DMZ 경기문화유산 보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DMZ내 문화유산 자료의 분류, 유형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DMZ 마을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남북한 문화 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라산에서 DMZ를 거쳐 걸어서 개성까지 갈 수 있는 도보길 개발도 남북의 경색국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DMZ를 도시의 근린공원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저해한 생태산업 및 공원, 환경친화적 시설과 국제기구가 들어가는 자연생태공원이며, 생태보전

형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논의 장이 되어야 한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20세기 이데올로기 전쟁의 상징인 DMZ를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평화의 프로젝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글로벌 평화대학, 대학원 중심의 통일대학 설립을 구상할 필요도 있다. 습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를 통한 통일을 먼저 시도하여 생태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젊은이에게 평화와 미래를 심어 줄 수 있는 UN 산하의 Youth Forum과 UN Youth Center의 국제기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 ○ 대략적인 운영방식은?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장단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 로드맵에는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기초조사와 문헌조사, 이어 단계별 시범사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원조달은 분야별 국비 조달과 남북협력자금을 마련하고, 경기도 대북사업비와 기업체 및 민간자본, 시민기부금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적극 활용 한다.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남북한 및 다자간의 협의에 의한 사업이 많으므로 우선은 가능한 범위에서 남한과 참여의사의 다자국이 함께하는 실천프로그램을 만들고 점차 확대하게 하나, 가능한 남북한 다자간의 사업을 우선시하여 한다. 참여주체는 UN사와 북한 등 여러 국가, 남한 정부의 관련 부서와 경기도 담당부서 그리고 NGO단체 등이 실천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 기대효과는?

DMZ를 남북한과 세계평화의 실천 전당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계의 통일과 환경·생태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 등 범지구적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생태와 환경의 자본을 활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담보로 건강과 복지가 중심이 되는 21세기 미래 업종인 생물건강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동아시아 평화대학교 설립

양훈도 \_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 ○ 왜 구상했나?

여기서 제안하는 동아시아 평화대학교란 분단의 현장인 경기 북부 지역에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으뜸가는 평화 중심 국제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가리킨다.

‘평화’는 ‘생명’과 더불어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가치이다. 평화와 생명은 한반도인, 동아시아인, 인류의 열망이다. 평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미래를 설계조차 할 수 없다. 경기도에 이처럼 소중한 평화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경기도는 언제나 새로운 가치를 발신하는 지역이자 선도하고 실천하는 지역이라는 역사문화적 맥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경기도, 조선시대의 경기도, 개항 이후 근대의 경기도든 경기도는 항상 한반도에 밀려오는 최신 가치가 전해지는 지역이었다. 경기인들은 때로 이 가치에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가치를 선별하고 발전시켜 최고의 가치로 수용 전파하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소용돌이치는 역사를 감당한 곳이기도 했다. 경기도가 분단의 최전선이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분단과 전쟁, 냉전과 화해,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70년의 역사를 끌어안으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게 평화를 염원하는 지역이 되었다. 분단 경기도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넓게는 지구의 평화를 실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더구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바뀌면서 경기도의 분단 현상은 향후 몇 년 간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전환기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고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시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갈등의 전환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폭력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평화를 주도할 학문적 실천적 현장을 만들어나가자는 주장은 세계인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가 이 일을 성사시켜 낼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물론 세계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업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경기 북부에 동아시아 평화대학을 만드는 사전 작업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도는 대북 교류 사업에 앞장 서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전임 도지사가 통일대학교 설립을 공약했고,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단계의 검토

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임 도지사 시절 논의된 통일대학교는 정원 200명 이내의 연구 대학원 규모의 대학교였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동아시아 평화대학교는 대학원대학교가 아니라 종합대학 규모다. 왜냐하면 통일을 넘어 남북 사회 통합의 과정까지 평화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도의 다차원적인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지 국제정치, 군사, 경제, 사회 분야의 고급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평화의 과정이 준비되고 실현되려면 역사와 철학 등 인문학, 어학과 문학, 자연과학, 기술분야, 의학, 교육분야,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 지식이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이 당장 평화통일의 분야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 입각하여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평화를 구축하는 기반이자 힘이 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해 두지만 진정한 평화는 다차원적인 네트워크를 총 가동할 때 달성된다.

게다가 이 대학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교수와 학생을 모집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화대학안과 차별성을 갖는다. 한반도의 평화통일만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동아시아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 비록 남북한 중국 일본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보다 대립과 대결의 복잡한 관계로 빠져 들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인들에게 평화로 가는 길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협력에 입각한 평화대학 모델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더 원대한 비전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고 본다.

#### ○ 대략적인 설립 운영 방식은?

경기 북부의 시군 가운데는 이러한 국제 종합대학이 들어설 경우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자치단체가 여럿 있다. 이미 200명

규모의 통일대학 설립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몇몇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더 큰 규모의 대학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립대학의 형식으로 동아시아 평화대학을 세우되, 유치 희망 시군과 적극 협력하면 설립 과정이 한결 수월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동아시아 평화대학이 모든 학부를 망라한 종합대학인 만큼 여러 학부를 경기 북부 시군들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한중일의 자치 단위나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평화대학의 비전이 뚜렷하고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이들로부터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북한과도 접촉하여 협력의사를 타진해 볼 필요도 있다. 이처럼 대학 설립 과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경기도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모집과 교수의 충원도 국제대학의 위상에 맞게 세계적 규모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세계적 평화학자를 교수로 초빙할 수도 있고, 세계적 수준의 평화연구소를 설립할 수도 있다.

### ○ 선결과제는?

도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대학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막대한 도비가 들어갈 수 있으나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강원도의 경우 남북강원도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독자적으로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차이를 떠나 생명평화동산을 인제군에 건립한 전례가 있다. 강원도의 도세를 감안한다면 매우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추진 주체가 중심을 잡고 치우침 없이 꾸준히 일을 추진해온 결과 성시시킬 수 있었다. 경기도의 도세라면 동아시아 평화대학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 단, 강원도처럼 비전과 목표를 확고히 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

는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도민의 지원을 끌어내야만 한다.

### ○ 덧붙일 의견은?

평화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 경제적 이익과 평화를 연결시키는 자유주의적 견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해소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보는 관점의 스펙트럼은 넓다. 자신의 견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평화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수 있고, 바로 이 점이 설립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가 내심 평화를 열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빠져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통일정책의 틀을 독점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동아시아 평화대학 설립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한반도 수준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라는 점을 내세우면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 ○ 기대효과는?

동아시아 평화대학은 경기도 새 천년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자치단체 수준에서 해내기 힘든 성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내실 있는 도립대학을 원했던 도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제4주제 :

## 법고창신, 경기 정신의 발견과 선양

- 16. 조선시대 실무관료의 재평가와 선양 사업 \_ 기호철
- 17. 경기도와 경화사족 관련 사적과 자료의 활용 \_ 이근호
- 18. 경기도 능묘유적의 활용 프로그램 \_ 김성태
- 19. 경기 삼성(개성 화성 안성)의 발굴과 현양 \_ 양훈도



# 조선시대 실무관료의 재평가와 선양 사업

기호철 \_ 서울대 의대 고병리연구실 연구원



## ○ 구상 배경은?

성호 이익(李瀾, 1681~1763)이나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을 중심으로 이른바 실학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를 활용하고자 남양주에 실학박물관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실학이 경학 일변도이던 학풍에 일부 실용적 측면을 부각한 의의가 있기는 하나, 성호나 다산의 실학이 조선사회에서 실천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점에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실학에 매몰되어 현실을 개혁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들을 놓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파주의 율곡 이이다. 율곡은 《경국대전》에서 표방한 삼대(三代) 이상사회

실현에 대한 200년 조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노력한 학자이며 정치가였다. 그의 《동호문답(東湖問答)》은 조선 200년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후 300년 조선의 개혁방향을 제시한 최고의 업적이었다. 〈만언봉사(萬言封事)〉, 〈육조계(六條啓)〉, 〈시폐칠조책(時弊七條策)〉 등에도 드러난 그의 개혁 사상은 양역변통을 통한 신분제 완화, 수미법(收米法), 호포제(戶布制)와 같은 것들로 이후 300년은 그가 제시한 개혁안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의 수미법은 사후 대동법을 통해 실현되었고, 양역변통은 영조에 의해 실현되었으며, 양인을 늘리는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은 봉당정치에서 서인 노론 집권기에는 시행되고, 남인 집권기에는 폐지되기를 반복하다가 영조의 결단으로 시행되어 양인을 늘려 국가를 중흥하는 기틀이 되었지만, 채제공 정권에서 다시 폐지되어 조선은 곧바로 민란의 시대로 붕괴하고 말았다. 그의 호포제는 양반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영조가 즉위 초에 이를 추진하다가 이인좌의 난을 겪기도 하였다. 불행하게도 호포제는 300년이 지난 흥선대원군 때에 이르러서야 시행이 되었다.

이이는 파주에 사는 지지(知己) 우계 성혼(成渾, 1535~1598), 이웃 고양에 살던 구봉 송익필(宋翼弼, 1534~1599)과 함께 여기에서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 일대에는 자운서원, 파산서원, 화석정이나 묘소, 기념관 등이 흩어져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의 시대에 실제로 이를 정책에 실현한 대표적 실무관료로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일월봉 일대에 살았던 학산 서호수(徐浩修)와 그곳에서 태어난 그 아들 풍석 서유구(徐有渠) 같은 이도 있다. 특히 서호수는 천문, 역법(曆法), 수학에 그 업적이 탁월하였으며 그 김영(金泳)과 같은 뛰어난 수학자를 발굴 육성하였다. 서호수, 김영을 중심으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학자 관료들이 있다.

일찍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성호와 다산 중심으로 실학을 정리한 까닭에 이런 실무를 담당한 관료는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하였다. 경기도에는 알려지지 않은 실학을 뛰어넘는 실무 관료가 대단히 많다. 위에서 언급한 율곡이나, 학산 서호수 등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발굴 정리하면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계발하고 이를 정책에 실현하고 지방에 전파하는 경기의 기능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 구체적 실천방안은?

파주에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등의 유적은 여러 곳에 남아 있고, 그들의 저작도 번역이 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연구도 이루어졌다. 필자가 알기로 파주시에서 자운서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파산서원도 육이오 이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발굴되었다. 구봉 송익필은 그 저작이 번역되지 않았고, 고양시에 드러낼 유적도 발굴이 되지 않았으며, 묘소도 충남 당진에 있어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관련 유적을 찾아 파주의 율곡, 우계의 유적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 세 벗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들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알리며 경기 문화의 특질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즉 기존의 문화사업을 통해 발굴 정비된 것들이지만 그것을 연계하면서 의의를 부각시켜 스토리텔링만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동부에 실학박물관이 있고, 남부에 성호에 대한 유적이 있어 서북부 파주, 고양의 이런 유적을 정비 연결하는 것은 경기 전체를 체계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호수, 서유구 등의 실무 관료나 기술관료 유적은 거의 남은 것이 없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번역이 진행 중이고, 서호수의 저작도 올해부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이 시작될 것이다. 연구가 미진한 것은 그들의 업적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업적을 알아보고 평가할 오늘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간 서호수와 관련된 천문학자, 수학자 등은 과학사 연구에서 드

러난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관심 밖이었다. 수학자 김영은 경상도 출신으로 서울과 파주에서 이를 공부하고 정책에 구현하였으며 이를 경상도에 전파한 사람이다. 이재 황윤석 또한 서호수나 장동 김씨 김원행(金元行) 등의 선진적 과학을 전달받아 전라도에 전파한 사람이었다.

실학자가 현실사회에 구현하는 학문보다 이상에 천착한 연구를 저술로 남겼다면 실무형 관료나 기술 관료는 새로이 받아들인 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이를 국가에서 구현하였고 이를 지방으로 전파하여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뛰어난 것들이었다.

우선은 기존의 이런 연구들을 취합하여 각 실무형 관료나 기술 관료의 거주지를 정리하고 그 유적을 찾아 체계화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큰 카테고리로 묶어낸다면 그간 전혀 알지 못하던 실무관료와 기술 관료가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연구 계발하고, 이를 정책에 실현하고, 지방에 전파하는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 추진에 있어 선결과제는?

울곡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제를 명확히하여 파주시, 고양시와 협력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의 주제를 경기도에서 명확히 선정한다면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끌 수 있다.

실무형, 기술 관료는 기초 연구부터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사 연구자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어 연구가 쉽지 않으므로 많은 연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루아침에 만족할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적은 연구비를 단계별로 투입하여야 한다. 우선 발제 성격으로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과학자와 경기도의 관련성을 정리하여 그 의의를 찾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드러난 인물에 대한 개별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유적을 발굴하며, 이런 심화된 연구를 통해 그 관료집단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주제는 어느 수

준까지만 경기도에서 유도하면 역사학계에서 자연스럽게 연구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도의 연구비 없이 이런 연구에서 결과를 모아 정리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일단 여기에 대한 기초 연구를 의뢰하여 부족한 상태에서나마 아지랑이 같은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자 간 논쟁을 유도하면 더욱 큰 실체가 자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서유구나 서호수의 저작이 번역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점차 관련 인물과 유적은 발굴이 될 것이다.

### ○ 기대 효과는?

경기 문화의 특질이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고 이를 계발하여 정책에 구현하고 지방에 전달하는 문화의 허브[Hub]’라고 본다면 조선시대 실무 관료와 기술 관료의 개혁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과학 기술 지식을 받아들여 계발하고 이를 구현한 것은 바로 경기 문화의 특질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는 특징을 지닌다.

실학이 현실 정치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특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실학이 주변부를 맴도는 학문이었다는 현실을 통해 비근하게 말한다면 ‘조선은 뛰어난 성찰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정체된 사회’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미래 지향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실무 관료와 기술 관료가 이를 계발하여 정책에 구현하고 지방에 전파하여 사회를 조금씩 발전시켜왔다는 점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점들은 오늘날 경기도가 가지는 특징과도 닿아 있으며 미래 경기도가 할 역할과도 연결이 된다.

미래를 이끌 경기도민에게 그들의 역할을 자각하고 나아갈 방향성이 되리라고 본다. 더군다나 지역별 안배도 이루어지게 되어 경기 전체에 대한 문화 지도를 풍성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경기도와 경화사족 관련 사적과 자료의 활용

이근호 \_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 ○ 구상의 배경은?

경화사족이라 함은 조선시대 이래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생활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으로 활동하던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때 한국사의 흐름을 주도했으며 오늘날 경기도 문화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낸 주역으로, 경기 문화의 정체성(正體性) 탐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고려시대까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개성과 인근의 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이후 수도가 옮겨지면서는 서울과 현재의 경기도를 중심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사람들의 이동도 있었다.

조선 후기 대내외 정세가 안정되면서 서울 지역 사족을 지칭하는 경화사족

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경화(京華)란 서울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경사(京師)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미 조선 전기 예종 연간에도 “경화별열(京華閥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선조 연간에도 “경화자제(京華子弟)”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서울의 상황을 표현한 각종의 한시에서도 확인된다. 허균은 <귀가(貴家)>라는 시에서 “비단 방석에 비단 꽃 그림”을 붙인 것 같다고 하여 호화로운 서울의 왕족과 명문가의 생활상을 읊었다. 이런 생활상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족들의 삶이 다른 지방과는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화사족은 서울, 그리고 경기 지역에 뿌리를 두고 생활하는 사족을 두루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경화사족이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조선 후기에 서울이 정치와 경제를 주도할 뿐 아니라, 사상과 문화도 지방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되며 지방의 사족과 구별되는 경화사족이라는 표현이 더욱 널리 쓰이게 되었다. 경화사족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원에 분포한 선대의 묘소나 별장, 농장 등을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생활하며 당대의 역사를 주도하였다.

조선 후기 경화사족은 당색을 초월해서 교류하였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삶은 무대인 서울과 경기 지역이 여러 방면에서 변화하자 이에 부응한 학문이 필요함을 자각하였다. 흔히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상적 경향을 말할 때 실학(實學)이니 북학(北學) 등을 거론한다. 이들 학문을 설명할 때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실용성과 과학성 등을 추구한 학문 체계라고 한다. 실학과 북학을 주도한 일군의 세력이 경화사족이다. 경화사족의 학문에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내재하였다. 심성에 대한 고찰에 그치지 않고 삶의 개선을 고민하였다.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중인이지만 능력이 출중하면 제자로 받아들여 교육하였다. 기존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며 동국진체나 진경산수화

와 같은 ‘진경문화(眞景文化)’를 만들어냈다. 그야말로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경화사족이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경기 문화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경화사족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첫째, 경화사족의 삶의 터전인 집성촌의 전면적인 조사가 선결과제이다. 경화사족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족적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혹은 관직을 그만두고 생활했던 터전인 집성촌에 대한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집성촌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는 1953년 『경기도사』 발간 때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성촌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특정 문층을 선양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경기정신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음에도 현존하는 집성촌도 다수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집성촌의 조사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집성촌은 단지 살아가는 가옥에 한정되지 않는다.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원, 재실, 사당을 비롯해 종산(宗山)과 누정 등도 경화사족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헌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간은 단순히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의 자연지리적 공간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를 통해 집적된 자료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원형이 잘 보존된 집성촌을 선

정하여 전통문화의 체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체험은 오감(五感)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람과 먹거리, 아울러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되어 현재 서울 경복궁 인근의 서촌이나 북촌의 사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대상의 선정은 역사성과 접근성, 활용성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의 선정은 특정 지역 한 곳의 집성촌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일종의 벨트로 묶어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집성촌의 현장 체험은 일단계에서는 지역내 교육 시설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체험하는 단계→이를 시, 군 단위로 확대하는 단계→도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 등 순차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집성촌을 대상으로 스토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정이나 종산 등과 관련된 스토리를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역동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는 재미적인 요소와 함께 경화사족의 역사성을 보여줌으로써 경기정신을 재창조하는 방향에서 정리한다. 아울러 스토리 창작 체험 공모전 등을 통해서 도민들 스스로 역사적 현장에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경기 역사 인물”의 선정을 통한 경기 정신의 함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경기 지역 출신의 경화사족을 발굴하고 이들이 당대 사회에서 했던 고민이나 의식 등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 데이터의 집적이 필요하며, 집적된 데이터는 인물의 선정에 활용한다. 이상적 계획인 실학과 달리 실제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면서 꿈을 현실화시키고, 학문을 정치적으로 특화시킨 인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개혁정치, 진보세력 등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인물들을 발굴해야 한다(울곡 이이, 우계 성혼, 잠곡 김육, 백헌 이경석, 미수 허목, 놀재 양성지 등). 선정 방식은 ㉠ 재단 주관 하에 선정하는 방식, ㉡ 각 지자체 또는 지자체 소속의 문화원을 통해서 추천 받는 방식이 가능할 듯하다. 이들을 선양하는 과정에서 앞서 조사된 집성촌의 방문과 현장 체험 등을 병행한다.

해당 작업은 지자체, 그리고 각 문종과 공동으로 선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 기대효과는?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인문정신문화’라는 개념을 내세워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업화에 집중하며 돈의 가치만을 강조했을 뿐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고,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시간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과 변화를 해 왔다. 이런 성장 속에서 우리의 인문학적 전통을 발견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였다. 그러다보니 인간에 대한 경시 풍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통한 정신혁명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경화사족의 삶과 문화를 살피는 것은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 경기도 능묘유적의 활용 프로그램

김성태 \_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장



## ○ 이 사업의 구상배경은?

경기도 지역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묘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도지정 문화재 중에서 능묘유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다수이다. 이런 상황은 능묘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능묘유적에 대한 활용은 거의 바닥이라 할 수 있다. 예산 투입에 대비하여 성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중이 관리해야 할 유적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돌봐주는 꼴일 수도 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지정, 관리함은 문화유적 자체의 보존에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교육의 자료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자산으로 이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한편으로, 조선시대 능묘문화에 녹아있는 문화콘텐츠는 가치 무궁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주요인물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점, 그 정치사를 능묘를 통하여 엿볼 수 있는 점, 무덤의 석물들은 조선시대 미술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점, 조선의 시대정신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비석들은 조선시대 서예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점, 고고학적으로는 순서배열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는 점, 풍수지리의 산 교육장이라는 점 등등이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역사와 정신을 농축해 둔 곳이 묘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능묘유적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능묘유적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문화적 잠재력에 비하여 너무나 외면 받아왔고 지금도 그 존재감마저 망각된 채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사대부의 무덤을 찾는 탐방객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능묘유적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정적인 답만이 있고, 이런 현실은 실로 안타까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바야흐로 능묘유적의 활용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인 듯하다.

### ○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문화유산은 크게 조사, 연구, 보존, 활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앞의 3가지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의 것, 즉 활용을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제안에서는 조사와 보존은 제외하도록 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 내의 능묘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거의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유적의 보존은 지금 다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와 활용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제시하겠다.

연구 분야에서는 학제 간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현재까지 능묘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학제간의 공동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전술했듯이 능묘유적에는 조선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연구도 총체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겠다. 즉 능묘유적의 연구에서 학문적 ‘통섭’이 필요하다. 이런 통섭적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능묘유적이 지닌 진정한 가치가 발굴될 것이고, 그 가치의 확산에 힘을 보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 그래야만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학문적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활용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통섭적 연구를 전제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연구 테마를 선정할 수 있다.

1. 비석의 장식문양에 조선시대 지배 사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이를 통하여 미술사적, 고고학적 문양이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 받는가를 구명한다.
2. 문종과 당파에 따라 비석의 형식과 장식문양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힌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 성향에서의 차이가 양식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고고학의 순서배열법이 우리나라 석물의 양식에도 적용되는가를 검토한다. 특히 국가가 이념을 통제하고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경우, 순수하게 순서배열법에 따라 양식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본다.
4.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풍수지리적 조사를 실시한 후, 조선시대 풍수지리의 참모습을 구명해 본다. 그리고 그 결과를 풍수지리서적의 그것과 비교해 본다.
5. 비석의 찬자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학맥과 인맥 지도를 그려본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문헌기록의 그것과 비교, 검토한다.
6. 비석의 규모와 장식이 피장자의 신분, 지위, 성별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지녔는가를 검토한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사회상의 일면을 복원해 본다.
7. 비석의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복원해보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출해 본다.

### ○ 연구에 기초한 활용 방안은?

능묘유적은 활용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그 보존과 관리의 의미가 있다. 이에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테마가 있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장 우선시된다. 학맥과 인맥, 가문을 중심으로 인물군을 선정한 후, 해당 인물들의 묘역을 답사한다. 특정 인물의 묘역을 역사자료 자체로 삼아서 인물의 삶과 사상, 그의 정치 성향, 학문적 예술적 위상 등은 물론, 석물들의 미술사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 더 나아가 풍수지리의 기본지식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묘비의 법식을 배우고 서예에 대한 기초지식도 전달한다. 요컨대 묘역 전체가 조선시대를 배우는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한다.
2. 주변 유교유적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능묘의 주변에는 재실이나 사당, 향교나 서원, 고택이나 세거지 등이 자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는 선정비나 정려각들이 분포한다. 이런 유교유적들의 답사를 통하여 조선시대 유교이념과 그런 이념들이 향촌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공부한다.
3. 체험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참여자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우선적으로 탁본 실습이 효과적일 것이다. 묘비 보호를 위하여 숙달된 강사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진촬영기술을 배우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촬영을 일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촬영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사진촬영의 기본은 1시간 내외의 교육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바,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나도 풍수쟁이’라는 제목으로 음택 풍수의 기본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탐사 묘역들의 풍수를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도 해 볼 만하다.
4.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유교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되찾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 버렸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교적 가치관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교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윤리에 접목하는 것이다. 체험과 교육도 최종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획은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겠다.

### ○ 기대효과는?

이 제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주변에는 선현의 능묘는 물론, 서원과 향교, 고택과 정자, 선정비와 정려들이 적지 않게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유교유적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며, 또한 그런 문화유적들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심이 생길 리가 없고, 또한 관리의 당위성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지표가 되는 역사의식을 갖게 할 수도 없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화유산정책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일면이다. 이른바 ‘국 따로 밥 따로’이다. 역사교육과 문화유적의 활용이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한 점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런 점점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고, 제대로 실행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경기 삼성(개성 · 화성 · 안성)의 발굴과 현양

양훈도 \_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 ○ 왜 구상했나?

개성 · 화성 · 안성은 경기도의 종단축을 이룬다. 개성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북쪽 끝, 수원을 포함한 화성은 중심부, 안성은 남쪽 끝이다. 고려시대 개성은 왕조의 수도였고, 조선시대에는 북쪽의 문화가 경기도로 넘어오는 길목이었다. 화성 지역은 원효의 고사가 말해주듯이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문화가 서해를 거쳐 전해지는 중요 길목이었고, 18세기말 정조가 화성을 축조한 이래 경기도의 수부라는 위상을 지켜왔다. 안성의 경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성, 안성, 죽산이 통합되면서 경기남부 최대 요지라는 오랜 정체성을 이어받았다.

역사지리 공간적으로 하나의 축을 이루는 세 지역은 특히 상업이 발달했다

는 공통점을 보인다. 개성상인의 이야기는 조선 중기 이후 전설이 되었고, 정조(正祖)의 계획에 따라 조성된 화성의 상권은 조선 최대의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안성 또한 삼남 내륙의 물산이 집산하는 중심축으로서 명성을 잃은 적이 없다. 이러한 세 지역의 특성이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일제의 상권이 파고들지 못한 조선의 3대 상권”이라는 민간전승을 낳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민담의 측면에서 이들 경기 삼성(개성·화성·안성)은 술한 이야기를 낳았다. 각 지역의 상인들이 발가벗고 80리를 뛰었다든가, 간장독에 앉았던 파리를 쫓아 천안까지 갔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이들의 철저한 상인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리로 전해진다. 또한 각 지역 상인들을 개성깍쟁이, 화성깍쟁이, 안성깍쟁이로 상징화하여 누가 더 지독한 구두쇠인가를 해학적으로 다루는 술한 이야기도 남아 있다. 이들 이야기는 이들 세 지역민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탐구된 적이 없다.

경기 삼성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음미해보면 이들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근검절약하고 자주적인 삶의 태도를 방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이야기에서든지 경우가 바르고, 자신의 직분에 철저하며,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질은 그 자체로 경기도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어왔으며(예컨대 경기도깍쟁이), 향후 경기도의 새 천년 비전에 포함되어야 할 민중적 가치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 삼성의 이야기는 새롭게 재조명되고 다양한 문화컨텐츠로 재생산되어 널리 현양될 필요가 있다.

### ○ 구체적인 발굴과 현양 방안은?

이 사업은 구비문학, 향토사학을 포함한 역사학, 문학과 예술 영역의 공동작업이 요구된다. 우선 구비문학 분야에서 경기 삼성에서 전해지는 각종 구비전승을 폭넓게 채록하여, 이들 이야기가 함축하는 경기도 보통사람들의 의식과 무

의식을 탐구하는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상권에 대한 역사적 정리가 시급하다. 1980년대 이후 조선 후기 경제사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경기도의 상업 발달 사에는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향토사학의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상업 발달의 과정에서 명멸한 수많은 인물들에 관한 자료 역시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되어야 한다. 상업을 통해 부를 이룬 거상과 부자들의 전기적 자료에 설화와 민담을 종합하여 경기도 상권의 계보를 추적하면, 경기 삼성의 이야기들이 함축한 더 풍부한 의미층위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개항 이후 경기도 부자들의 계보 정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곁들여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모아 그 의미를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터이다.

새롭게 발굴된 이야기와 역사적 사례들은 영화·소설·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업 기획 단계부터 구비문학, 역사학, 향토사학, 관련 문학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도록 하여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고품질 문화콘텐츠 팩션(fact+fiction)이 탄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기대효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의 축적 양태가 다르고, 일반 민중의 가치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포착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다듬는다면 경기도의 문화를 한층 풍부하게 하는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이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 구실을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문화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제5주제 :

# 경기 새천년을 위한 융복합 문화의 창출

- 20. 고고학 체험 동산의 건립과 운영 \_ 김성태
- 21. 경기도 근현대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 조명 \_ 양원모  
- 자료수집과 기초 연구 그리고 활용 다각화 -
- 22. 경기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_ 표신중
- 23. 미래 자원이 될 문화유산 경기음식 \_ 염상균
- 24. 고구려유적 대장정 답사 프로그램 \_ 허미형
- 25.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_ 임재춘
- 26. 경기도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_ 이형복  
- 고품격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 개발 -



# 고고학 체험 동산의 건립과 운영

김성태 \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장



## ○ 이 구상의 배경은?

북한산성문화사업팀에서 현재 ‘놀토, 고고학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예약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인기가 아주 높다. 사업 완료 후 설문을 받아보았을 때,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다. 수동적 교육보다는 자신이 직접 몸으로 배우는 체험교육이 아이들의 정서와 취향에 알맞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고고학 체험교실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50% 정도 받아서 실시하는데, 전국적으로 보아도 호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문화의 트렌드는 ‘몸’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체감하고, 체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얻은 지식은 오래가며 자신의 것

이 된다. 그러기에 박물관 문화교실도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문화유산의 활용도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고고학의 한 분야로 '실험고고학'이 있다. 고고학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이용해 봄으로써 고고학적 문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코자 하는 전공분야이다. 화살촉과 화살, 그리고 활을 직접 선사시대 방식으로 만들어 사냥에 이용해 보는 것도 실험고고학의 한 실례이다. 그러면 돌감의 선택, 돌감을 이용한 제작 공정, 사냥에서의 효과 등등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궁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실험고고학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이 사업은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는 점, 흥미로우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점, 일정 정도의 수익 창출을 꾀할 수 있다는 점,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소규모의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공기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টে으로 생각된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우선 공간의 확보 방안이다. 경기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현재까지 자료조사로는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이 최적의 장소이다. 중부고속도로와 3번국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인데다 도자공원의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현재 이른바 '놓고 있는 땅'이다. 고고학 체험동산의 조성은 약 1만평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업의 추이에 따라 공간은 확대해 나가면 된다.

시간적 범위는 선사시대로 제한하면 좋을 듯하다. 선사시대 도구와 시설의 제작이 단순하고 단시간에 할 수 있기에 체험프로그램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는 고대보다는 선사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덧붙이자면, 현재보다는 먼 과거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다.

공간의 분할은 발굴 체험장, 유물정리 체험장, 석기 체험장, 토기 체험장, 직조 체험장, 주거지 체험장, 사냥 체험장, 전투 체험장 등으로 나누면 되겠다. 발굴 체험장은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모의로 만들어 그 내부에 모조유물을 두고 발굴을 체험하는 곳이다. 정식적인 발굴방법을 배울 수 있고 유물을 스스로 발굴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참고로 고고학전문기관들이 실시하는 고고학발굴체험은 아동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유물정리 체험장은 발굴유물의 복원과 실측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후술한 토기 체험장이나 석기 체험장에서 자신이 만든 유물, 혹은 발굴 체험장에서 자기가 발굴한 유물을 가지고 그것을 실측, 탁본해 보는 것이다. 유물 사진 찍기를 통하여 사진기술을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석기 체험장은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를 제작해 보는 곳이다. 타제석기의 제작은 전곡선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응용하면 되겠다. 제작된 박편으로 풀잎 베기 등과 같은 ‘사용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마제석기는 타제석기 제작방식으로 만든 화살촉을 갈아서 마제석촉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알맞을 듯하다. 이와함께 화살대와 활도 함께 제작을 하도록 하여 한 세트의 궁시도구를 스스로 만들게하여 후술한 사냥체험에 사용토록 한다.

토기 체험장은 테쌍기 방식으로 신석기시대 토기를 만들게 한 다음, 그곳에 조개껍질 등을 이용하여 이런 저런 문양을 넣게 한 후 노천요에서 직접 굽게 한다. 그런 후 그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소장케 한다. 그렇게 만든 토기로 조개탕을 끓여 먹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하다.

직조 체험장은 짚공예를 체험하는 곳이다. 짚이 아니면 노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짚공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시하면 되겠다. 현재까지 짚공예 작품이 고고유물로 확인된 것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표본은 다양하지 않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짚으로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다. 노끈을 이용한 매듭공예도 함께 해 볼 수 있다.

주거지 체험장은 신석기시대 집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곳이다. 규모가 작고 구조가 간단한 신석기시대 원형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면 되겠다. 부재를 미리 준비해 둔 다음 6인 1조 정도로 하여 수혈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엉을 올린 후 중앙에 노지를 만든 것으로 작업을 종료하면 되겠다.

사냥 체험장은 구석기시대의 투창기로 창던지기를 실시하거나 직접 만든 활로 사냥감을 쏘는 체험 공간이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내재된 ‘사냥본능’을 발산할 수 있기에 인기가 좋을 것은 뻔하다.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새총 쏘기도 함께 체험토록 하는 것도 좋겠다.

전투 체험장은 현재 남한산성에 실시하는 있는 무예 체험을 옆두에 둔 것이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다음, 일대일 방식 혹은 단체전 방식으로 칼싸움, 석전 등을 체험토록 하면 되겠다. 특히 석전은 고증이 충분한 바, 원형을 고려하여 단체전으로 실시하면 새로운 놀이아이템으로 발굴할 수 있겠다.

이상은 대중 생각나는 대로를 정리한 것이다. 실험고고학 관련 서적을 참고하고,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더 연구한다면 아주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사업이 안착되고 나면, 공간 내에 ‘실험고고학연구소’를 아주 소규모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소를 통하여 체험의 콘텐츠를 심화, 풍부하게 해 나가야 이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술적으로 실험고고학의 실질적인 적용과 응용으로 한국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이 연구소를 통하여 ‘고고학 문화상품’을 제작하면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 가능하겠다. 더 나아가 박물관 전시 모조품으로까지 정교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 ○ 대략적인 운영방식은?

공간을 마련한 후 발굴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면 되겠다. 인건비는 경기도와 재단이 지원하고, 사업비는 국비 지원과 자체조달로 가능할 듯하다. 주중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삼고, 주말에는 가족단위참가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면 되겠다. 이 고고학체험프로그램은 성인남녀도 즐길 수 있으므로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승산이 있다.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일단 상기한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의 사용이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고고학 체험과 연계될 수 있는 ‘발굴유물전시관’, ‘보존과학병원’, ‘한국유적공원’이 동일 부지 내에 조성된다면, 사업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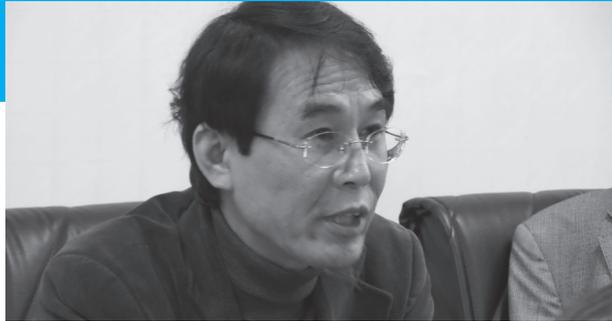
#### ○ 기대효과는?

경기어린이박물관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리고 유일의 ‘고고학 체험동산’의 조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문화아이템의 개발과 문화공간의 조성이라는 문화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야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의적절한 아이템이라 생각된다.

# 경기도 근현대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 조명

- 자료수집과 기초 연구 그리고 활용 다각화 -

양원모 \_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 ○ 이 구상의 배경은?

경기도 미래유산의 하나로 주목할 만한 것은 경기도 태생 또는 경기도에서 활동한 근현대 예술가 가운데 작고(作故)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이다. 이들이 펼친 예술활동과 예술 산출물(작품)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공간 (생가, 예술·문화공간 등) 및 이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연구성과물 모두가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근현대 작고(作故) 예술가 목록화 작업과 함께 지도그리기(매핑), 그리고 관련 예술가 활동 자료와 작품 수집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모아 연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경기도 근현대 예술 사료(史料)관 또는 31개 시군 근현대 예술 사료실 설치  
가 필요하다.

도 대표 도서관과 31개 시군립 도서관을 연계하여 그 곳에 설치할 수도 있으  
며 경기도 소재 문화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그 곳에 설치할 수도 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별도의 전담기관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내에 둘 수도  
있다.

근현대 예술 사료(史料)관 또는 31개 시군 사료실이 설치되면 자료(인쇄물,  
사진, 음원, 영상, 이미지 파일 등) 수집과 분류, 보존 그리고 기초연구가 가능한  
기본 인력 (아카이비스트)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가별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모음집 출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경기도 근현대 작고(作故) 예술가의 생가 또는 주요 활동공간이었던 곳에는  
예술가의 활동과 작품을 상기시킬 수 있는 뜻말이 있기를 바라며,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아담한 기념관을 지어 지역 예술 사랑방 겸 예술가 활동 관련 자료 전  
시관으로 쓰여지길 바란다.

### ○ 대략적인 운영방식은?

경기도 근현대 예술 사료(史料)관 또는 31개 시군 근현대 예술 사료실의 운  
영 예산은 공공예산으로 뒷받침하여야 하며, 작가별 기념관은 000 문학관,  
000의 아프리에, 000 음악의 집, 000 연극의 집, 000 춤의 집 등 작가 활  
동 갈래에 따라 다양한 명명이 가능하며, 설계시 전시실, 교육실, 연습장, 회합  
실, 카페, 아트 샵, 레스토랑 등의 결합이 가능하면 운영 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구미에서는 예술생산자조합, 또는 예술생활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어 기념관 공동운영방안을 마련하기도 하며 기업과 협약을 맺어 기념관 건축과 운영 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근현대예술가 목록화와 31개 시군 대표 예술가 선정이다.

경기도 각시군에서 1인 씩만 추천해도 31인의 예술가가 1차 자료수집과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술 갈래별 형평 조율은 뒤로 미루더라도 각시군이 우선하여 기리고파 하는 예술가 선정이 무엇보다 먼저이다.

예술가 선정 기준은 우리나라 근현대 예술사에서 중요한 예술가로 거론되는 분이 최우선이어야하며 다음은 경기도근현대예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예술가이어야한다. 따라서 31개 시군에서는 갈래별로 기리고파하는 예술가 추천을 받아 예술사가, 예술비평가의 자문 하에 예술가 자료수집과 연구 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 기대효과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근현대 예술가에 대한 집중적 조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기초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공간적, 시간적, 문화적 원소를 제공하므로 다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다

예를 하나 들면, 경기북부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는 2003년부터 제1회 천상병 예술제를 열기 시작하여 올해 열한번 째가 되었다.

천상병예술제는 매년 4월 하순에 열리는데 천상병 문학상 시상, 천상백일장, 천상문학포럼, 천상문학산책, 시가 있는 천상음악회가 펼쳐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천상병 시인의 삶과 예술세계를 형상화한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이 풍성하게 생성되었다.

지역민들은 천상병 시인을 친근하게 느끼며, 예술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감상자이자 참여자로 스스로를 바꾸어 가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 가난을 택하며 맑은 삶을 살았으며, 삶에 대한 적극적 긍정과 낙관을 예술로 드러낸 천상병 시인과 헌신적이 사랑의 본보기인 천시인의 반려자, 목순옥 여사의 삶을 통해 지역민들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삶의 의기소침을 떨쳐낼 수 있다.

천시인을 기리는 사람들은 천상병문학관 또는 천목(천상병의 천, 목순옥의 목을 합친 말)의 집이 세워져 일상적으로 지역 시민들이 이곳을 사랑방, 동아리 회합장, 교육장, 미니 콘서트 홀 등으로 활용하며 샘물에서 목을 축이듯 맑은 천시인의 예술세계를 생각날 때마다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근현대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사업은 지역 시민들로 하여금 예술가와 예술을 통해 세계와 자아를 대면하게 해 줌으로써 경기도 문화 시민 육성의 태반을 형성해 줄 수 있다.

# 경기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표신중 \_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 이 사업의 구상 배경은?

경기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경기도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기록물과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한 도서관 및 사이버 도서관을 활용하여 경기도 문화예술의 기록물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기 위한 사업이다.

## ○ 이 사업의 중요성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될 수 없다. 경기도가 오랜 기간 수도(首都)의 배후지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문화예술까지 변방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경기도가 변방 취급을 받는 것은 근현대에 이룩한 문화예술적 성과들이 기록으로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경기도민 스스로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다.

지방정부의 기록은 이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반 시민들의 삶에 관한 기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의 삶에 관한 기록 중 문화예술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한 시대를 반영하는 특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예술 작품을 활용하는 이유는 작품 속에서는 각 시대, 지역의 고유한 풍물은 물론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 이 사업의 수집 대상

- 일차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것은 작가들의 작품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출판물이나 각종 인쇄물에 대한 디지털본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수집단계에서 디지털 본을 함께 수집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
- 다음으로 문화행사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축제 및 공연의 팸플릿에서부터 행사장 안내도, 순서지, 관광안내도 등은 공식적인 기록물과 달리 현장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이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버려져 사라지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 미디어 자료의 수집도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무한정 생산되고 있지만 막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드문 형편이다. 일정한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자료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수집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료의 수집이다. 디지털 자료는 사진자료에서부터 동영상, 문서파일, 홈페이지까지 다양하다. 특히 시급한 것은 일정 기간 운영되다가 운영이 종료되면 모든 자료가 망실되는 홈페이지 자료들이다.

### ○ 이 사업의 구축 방안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각 지자체의 도서관을 활용하여 별도의 조직과 시설 없이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의 도서관들은 대부분 향토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기본 임무로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서관만 향토자료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자료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문화예술 관련 자료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수집과 보존이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서 인력의 부족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 내에 별도의 보존 공간을 확보하고 보존을 위한 수납도구들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포스터나 안내도의 보존을 위한 도면보관함이나 튜브 캐비닛, 도면걸이, 지관통 등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장비들이 필요하다. 도서관들이 대부분 공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의 증가속도가 완만할 경우에는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 자료의 수집과 관련해서 꼭 언급해야 할 사항은 지자체와 문화재단들의 협력이다.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가 생산하는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비중이 적지 않고, 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결과는 모두 아카이브의 수집대상에 해당한다.

※ 1980년대 KBS와 MBC의 방송아카이브 구축 초기에 원본 비디오테이프

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 테이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아카이브를 구축한 사례가 있다. 지자체가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기관(도서관)에 납본해야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내부 규정만으로도 별다른 인적 자원의 소모 없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 이 사업의 활용방안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료를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해외 도서관의 아카이브나 전문적인 필름 아카이브, 사진 아카이브들은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사를 연구하는 학자 등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학예사 혹은 큐레이터들이 소장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전시, 상영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서 언급했듯 경기도의 지역문화예술사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자료가 수집되면 이를 분류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리작업만으로도 흥미로운 전시의 기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연극제 개최시에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와 역대 공연작품의 비디오클립 상영회가 가능하다.

### ○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의 수립에는 문화재단과 도 대표도서관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책임질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카이브 종합계획 속에는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분류기준, 원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 디지털 문서 및 이미지 자료에 대한 표준 규격, 디지털 자료의 활용에 대한 저작권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의 산출과 수급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 미래 자원이 될 문화유산, 경기음식

염상균 \_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



## ○ 왜 경기음식인가?

전통사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제철에 나오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먹었다.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이른바 ‘로컬푸드’ 만을 먹었던 것인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지역의 의미가 쇠퇴해졌다. 교통이 편리해질수록 그 거리감은 점차 줄어들었고 또 그만큼 각 지역음식의 특성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가장 크게 특성을 잃은 음식이라면 단연 경기음식일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극에 강한 동물이다. 음식에서 강한 맛을 한 번 보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맛에 중독되는 현상도 보인다. 지금의 김치에서 고춧가루를 빼다면, 그리고 고추장 없는 식

탁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밥맛’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는 모두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이후 자극적인 고추 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자화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도의 음식들은 그 맛이 짜고 매운 등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높은 온도와 습도를 이겨내고 냉장시설이 없던 시대에 저장성을 키우기 위한 필수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면서 남도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그 자극적인 맛에 이끌려 자주 찾다보니 이제는 전국의 음식점들이 내놓는 김치와 음식들이 모두 자극이 강한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인체에 결코 이롭지 않은 매운 맛-캡사이신 등-과 고혈압의 최대 적이라고 할 고염도의 짠 맛이 아니면 미각을 자극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최근에 부는 저염 식탁이니 로컬푸드 운동 등 개선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사실이지만 경기음식의 원형을 찾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다.

### ○ 경기음식의 특징은?

경기는 지역 특성 상 고려와 조선에 걸쳐 천 년 동안 그 중심문화를 이끌어왔다. 궁궐과 사대부의 음식문화가 고스란히 가장 먼저 전파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고급의 음식재료가 모두 모이는 곳이었다. 또한 궁궐에서 활동하는 숙련된 숙수에 의해 그 조리법이 전파된 곳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수원화성에서 벌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서는 궁중의 진찬연과 혜경궁 및 정조의 밥상, 그리고 음료와 죽 등 고급의 다양한 음식문화가 구현되었다. 혜경궁 회갑연 다음날 연 양로연과 화성성역 때 베푼 호궐(犒饋)과 낙성연 등 음식은 다중이 이용한 것이므로 요즘의 잔치음식에 차용해도 좋을 것이다.

경기음식은 양념보다는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다.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 심심할 정도의 염도로 만드는데 이를 경기 말로 ‘슴슴하다’ 라고 표현한다. 김치도 멸치젓이나 액젓을 사용하기보다 새우젓을 넣어 담그는데 그 양을 많이 넣지 않으므로 시간이 오래가도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한 맛을 느끼게 해준

다. 더구나 멸치젓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아서 담백한 맛을 지닌다. 김장김치에 양념을 적게 넣은 것도 김치가 다음해 봄까지 무르지 않게 하는 비결이었다.

잘 찢은 메주로 담근 된장은 남도에 비해 저염으로도 가능하였기에 요즘의 요구에 꼭 맞으며, 깊은 맛을 느끼게 하는 간장은 약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 김치나 장을 담그는 향아리도 경기의 그것은, 어깨가 넓고 통통한 남도 향아리에 비해 훌쩍하리만큼 날씬했는데 이는 남도에 비해 경기 지방이 평균 온도가 낮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 경기 지방의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들도 되새겨 볼만하다. 각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는 음식들의 특성을 잘 살리고, 보다 경기음식에 맞게 개선하여 ‘대표선수’로 키워가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이 경기음식을 살리는 길은 곧 한국음식을 되살리는 지름길이다. 한국음식의 표준으로서의 경기음식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모두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즐길만한 음식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 ○ 경기음식을 선정하고 계승은?

아직까지는 경기음식의 맛과 멋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요리연구가들도 많으므로 가칭 ‘경기음식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기음식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경기음식의 원형을 잘 간직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내고 음식 하나하나의 조리법도 정리해야 한다. 또한 경기음식의 기능을 제대로 보유한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선발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후계자도 기르도록 독려해야 한다. 아니면 우선 ‘경기음식장인’이나 ‘명인’ 등의 칭호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기존 음식점 중에 경기음식 만을 판매하려는 식당을 모집하고 장려하며 표준조리법을 보급해야 한다. 이런 음식점에는 당연히 특별한 표식을 붙여주어야 하고 꾸준하게 관리하여 경기음식의 원형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음식점 업주들이 경기음식을 판매한다는 자부심까지 지니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경기항아리의 모양이나 크기도 사용하기 좋게 바꾸어야 한다. 대신 항아리 특유의 통기성(숨쉬는)은 간직하면서, 깨지지 않고 향균 및 보존성이 높은 신소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플라스틱 그릇이나 금속 재질의 보존용기로는 항아리의 그 맛을 되살리기 어렵지 않은가.

경기지방의 다양한 장류도 계승해야 경기음식의 정체성을 지키게 된다. 모든 한국음식에서 전통장류가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이고, 가급적이면 소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통간장이나 된장 등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경기음식의 원형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잘 키운 국산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말리고 띄우는 일도 체계화 하고 수치화 시켜야 한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며 콩을 삶고 메주로 성형하여 말리고 띄우는 일이야말로 우리 전통장의 보존을 위한 경기음식의 시작이다. 전통적인 방법만 고수하면 시대에 맞게 보존하기 어렵다. 게다가 저염장을 담그기 위해 사용하는 소금과 메주와 물의 비율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요리는 과학이라고 했다. 전통사회의 손맛도 중요하지만 그 맛을 오랫동안 지키고 보존하며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계량화가 필수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짜지 않으면서 부패는 되지 않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내고 보급해야 한다. 이 또한 경기음식을 보존하고 개량하기 위한 전통 장류가 품어야 할 숙제이고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경기음식 전체로 파급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 ○ 경기음식체험장 건립 및 운영은?

드라마 대장금의 열풍으로 한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우리 국민들도 요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 관

광객이나 국민들이 대장금 요리를 사먹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 그에 관한 정보도 적었거니와 드라마 내용에 맞게 음식을 제대로 판매하는 곳도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장금 2편을 곧 제작하여 방송하고 해외로 판매도 한다고 하니 또다시 그 열풍이 불 것이다. 대장금에 나오던 요리의 대부분은 경기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스토리를 충분히 이끌어가고도 남은 음식이 경기음식이다.

경기음식체험관의 건립은 시급하다. 경기음식과 그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도 중요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한국음식 가운데는 경기음식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럼 경기음식체험관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우선 경기도 내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좋겠다. 특히 수원화성은 관광객도 많거니와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열었던 곳이므로 체험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하겠다. 아니면 한국민속촌이나 그 주변관광지 근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지나 유적지가 가까워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장소가 좋다. 가급적이면 건물은 전통한옥으로 짓되 실내는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미는 것이 좋다. 이 체험관에는 교육공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체험공간과 시식공간, 그리고 전시공간 및 판매공간도 꼭 필요하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예약하고 와서 경기음식을 배워 만들어보고 먹어보기도 하며 그 재료나 음식을 구입해 가는 것은 물론이요, 건강에 필요한 경기음식문화를 배워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내의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해결함은 물론이고, 경기음식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경기음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아직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못한 흠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길을 열어가다 보면 세계인이 모두 즐겨 찾을 음식문화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즉 미래자원으로 키워야 할 가치가 충분한 것이 경기음식이다. 그 장정을 위한 첫 걸음을 이제는 떼어야 할 시점이다.

# 고구려유적 대장정 답사 프로그램

허미형 \_ 경기도박물관 학예팀



## ○ 이 구상의 배경은?

1990년대 이후, 한강 북변의 아차산에 고구려 보루 유적이 집중되어 있음과 함께 이들 유적이 조사되기 시작하면서 남한지역에 고구려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각 시·군별로 문화유적에 대한 광역지표조사가 실시되면서 다수의 고구려유적이 확인되었고 특히 경기지역은 위치적인 특성상 남한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유적의 70% 이상이 밀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고구려유적에 대한 보존을 위해 1990년대 후반기에 고구려 보루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동시에 이전 시기에 발굴조사된 유적 중에서도 고구려적인 요소들에 대한 재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임진강과 한강유역의 보루유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조사가 청원이나 대전 등 남쪽지방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또한 고구려유적이란 하면 주로 관방유적 위주로 조사되었던 데에서 나아가 고분유적과 생활유적에서도 고구려적 요소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려유적과 관련한 연구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었다. 또한 당시 남북화해 분위기와 2002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관련한 역사 왜곡 작업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2004년 6월 중국과 북한 지역의 고구려유적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의 외부적 상황과도 맞물려 고구려유적의 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체 유적 중 불과 13개 정도의 유적만이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과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발굴조사와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유적은 여전히 비지정문화재로서 보존과 정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 세대들이 이들 유적을 찾아가 유적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이들 고구려유적이 남한지역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고구려유적 대장정’을 체험하면서 확인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제안한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참가대상 : 우선 이 대장정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타겟이 되는 계층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이다. 다양한 대학입시 방법이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장정을 실시하고 그 진행과정을 각자가 기록해 보고서로 완성한 후 인쇄물로 나눠주어 각자가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학생들이 추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생 개개인의

생활기록부상에 관련 사항이 기록되면,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입학을 하고자 할 때,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 교사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필요하다면 참가증을 발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와 연계되어 있음을 프로그램 명칭에 함축시켜야 한다. ‘교과서 속 고구려의 남하정책 관련 유적 체험 대장정’ 프로그램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실시 단계를 설정해 본다면,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MOU를 맺고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운영해 보도록 하자. 이후 보완사항으로 떠오른 내용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합해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제안하는 것이다.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번째 타겟인 초·중등 단계의 학생을 둔 가족 단위의 참여객들을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캠핑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다수의 캠핑장을 조성해 놓고 있으며, 주말이면 단순하게 즐기려는 목적으로 떠나는 가족 단위 캠핑족이 많다. 이들 단순 캠핑족들을 역사·문화 목적의 캠핑족으로 한단계 끌어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대상에게도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캠핑과 역사교육을 겸할 수 있음을 강조 한다. 가족단위의 자유 캠핑이라 하더라도 몇 가족으로 묶고 주관 단체의 전문가가 동행하여 캠핑을 진행하면서 그 유적이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실시 시기와 탐방지역 설정 : 대장정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2박3일 정도 실시 하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같은 참가자가 3회 정도 연속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동행한 전문가가 대개의 고구려유적이 하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되, 한강유역과 임진강유역 등 큰 하천의 북안(北

岸) 또는 강과 지류천이 만나는 합류지역 중에서도 북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계와 고대 간선로 상에 선적(線的)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주변에 고구려유적 뿐 아니라 신라와 백제의 유적도 존재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고대 시기, 삼국 간 접점을 이뤘던 경기도” 지역이 한국사에서 갖는 의미도 동시에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탐방지역은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뉘서 참가자 별로 3차례 참가하여 각 코스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되, 임진강유역·양주지역·한강유역으로 나누고 유적 간 정비와 보존 상황을 ‘극과 극 비교체험’ 해 볼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로 방치되어 있는 유적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 여타의 대장정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현재 다양한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개의 프로그램이 민간단체나 특정 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내거는 가치는 ‘극기’ 혹은 ‘인내심’, ‘국토애’ 등이다. 최근에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를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장정 프로그램들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이념과는 달리 진행 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자주 보아 온 터이다. 민간단체의 특성 상 이윤추구에서 비롯되는 경비 집행상의 부작용, 참가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여러 유형의 안전상의 문제, 막연하게 강요되는 국토애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고구려유적 대장정’ 프로그램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하고 결정하되 사후 성과 등을 피드백하기 용이한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대장정과 비교해 내세울 수 있는 차별성은 표방하는 가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공가치’, ‘미래 세대’, ‘역사’를 대표 이념으로 바탕으로 두고, 고구

려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대 관방유적을 몸으로 경험하는 ‘교과서 속 역사 체험 대장정’이라는 점이다. 첨단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가상 세계에서 생각하고 움직이 데에 익숙해 있는 미래 세대들이 몸으로 직접 고대인들이 산세와 물길을 어떻게 읽어내고 이용했는가를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가치는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소중한 ‘경험자산’이 될 것이다.

### ○ 좀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안내서 혹은 체험지를 겸하는 소책자에 탐방하려는 유적에 대한 기본사항과 위치 등을 수록하겠지만, 더 나아가 수계와 산지만이 표시된 백지도 혹은 수치지도 등을 아이패드 등에 탑재하여 탐방지의 GPS 좌표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고구려유적 분포상황’이라는 GIS 주제도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실제로 고대의 유적들이 수계와 지형에 따라 조성되었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IT세대들의 특성을 살린다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대략적인 운영방식은?

교육청이나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하는 대학 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엄정한 기준에 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답사강사와 각 프로그램별 책임자 역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진행과 보고서 마무리까지 내실있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탐방과정에서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유적, 혹은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유적을 포함하여 그 과정에 참가자가 잠깐이라도 개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고대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은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뿐아니라 관련 전공 대학생이나 성인남녀 및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포함된 가족단위 캠핑족도 즐길 수 있으므로 이들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수도 있다. 세부적인 방법론상의 다양한 기법, 예를 들어 방문유적 스탬프 찍기, 인증샷 찍어

올리기, 과거 지명 알아보기 등 유적 탐방시 미션 수행 등의 세부사항은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수준이나 관심의 정도 등을 반영해 가감해서 운영할 수 있다.

### ○ 추진상의 선결과제는?

일단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내서 혹은 체험지 기능의 소책자 발간 및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가 후 생활기록부 상의 기록, 그리고 후에 있을 대학입시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소책자에는 남한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유적의 잔존 및 분포 현황 등을 수록하고 그러한 분포가 갖는 의미, 고대 간선로의 기본적인 개념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참가자의 참가 체험기록에 대해 전문가의 코멘트가 첨가되어야 한다.

### ○ 기대효과는?

경기도가 갖는 역사·지리·문화적인 위치를 체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교과서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고구려의 남하정책과 관련된 유적이 참가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실제하고 있음을 체험해 본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유적에서 진행 중인 발굴조사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까지 주어지므로 그 경험의 강도는 무척 깊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남한지역 고구려유적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경기도의 고민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이들 미래 세대의 참여를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교통로의 주요한 기능은 정보와 인력, 그리고 물자의 이동에 있다. 고구려의 남쪽지역 경영이 주요한 교통로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그 목적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고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재춘 \_ 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 ○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설계의 방향과 원칙은?

### 1)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사회적 반성은 소위 참살이의 트렌드적 접근을 넘어 삶의 목표와 방식에 있어 사회적 관점과 태도가 향후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단지 현재까지 어어져 온 교육의 병폐를 가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배움의 목표, 주체, 동기, 방법, 과정이 우리 삶과의 관계속에서 맥락화되고 감각화되는 일련의 모든 것을 염두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중심의 정보를 전달, 기억하고 이의 목적이 성적이나 입시와 같은 것으로 성공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존의 제도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배움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확대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배우고 나누는 일은 교육제도 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서를 넘나들며 내용을 다각화하고 수업의 방식 역시 강의, 토론, 실행 워크숍, 체험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 과목이나 장르 간 이기주의를 넘어 통합적 운영이 시도되는가 하면 교사와 예술가들이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팀티칭 프로그램도 시도되고 있다. 답사와 인문강의, 체험 외에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의 체질적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 2)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

축제 등 규모가 큰 행사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다수 대중의 집단적 참여를 짧은 시간에 일종의 참여적 성취감 등을 줄 수 있는 등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종의 사건으로서의 경험은 교육적 효과면에서 지속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화된 교육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보다 다각화된 교육 행위가 기획되어야 하고 이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경 등 일련의 경험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적 경험이다.

위의 1)과 관련하여 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문학 등으로 장르화된 학습적 접근 외에 예술의 역할과 기능, 속성 등을 사회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교육에서의 반성과 유사한, 또는 매우 밀접한 과제들이 등장하게 된다. 엘리트 중심의 기능교육으로 우리 삶과 떨어진 예술을 생명들이 살아가는 크고 작은 현장으로의 관심을 통해 역사적으로(본래) 예술, 예술가가 당대에 어떤 의미였는가, 현재는 어떠한지 논의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점에서 각자의 위치, 역할, 입

장에 따라 쟁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예술의 교육적 의미,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강조한 생활문화로서의 문화유산, 즉 일상적 경험은 예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 3) 동시대 삶과 관계 맺기가 가능한 전통과 문화유산

과거의 문화적 자산이 현재, 각자의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왜 문화유산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고민과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의 구성과 기획이 흥미로울 것이다. 학교폭력, 10대들의 언어사용 현실, 세대갈등, 우울, 안전한 먹거리, 인간관계, 육아, 리더쉽, 정의, 시대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안전망 등이 또래들의 전통놀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웃문화 등이 당대의 시서화 등 문화유산을 통해 사실적 답이나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획이 전무하다.

### 4) 배움의 주체에 대한 교육적 이해와 탐구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교육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발달단계에 따라 지적, 신체적, 감성적 변화는 물론 또래 문화의 이해,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환경의 극적 활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청소년, 청년 뿐만 아니라 교육주체에 대한 이해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의 수준과 범위, 무엇보다 방식을 기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5) 메타적 설계를 통한 질적 계획의 수립과 운영

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은 일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방식을 넘어 원하는 모두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통문화카페는 상징적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내면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 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가능한 설계의 제안이 가능하다.

## ○ 제안 프로그램안

### 1) 사업명

전통문화 시민공간 “늘” 또는 “Cafe 컨템포스토리” 운영

\*\*컨템포스토리 : 컨템포러리(Contemporary)+히스토리(history)

### 2) 컨셉

문화유산이 지닌 의미를 지금의 문화적 트렌드나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시민들 일상에의 접촉을 유도한다. 전통적인 메뉴의 음료와 간식, 브런치 등 기능면에서 기본적인 카페기능을 지니고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파티와 모임 등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고민과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통찰하고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주제의 것으로서 전통육아백서, 몸에 이로운 요리, 토종씨앗으로 텃밭 만들기, 전통적 적정기술로 만드는 대안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되새겨 볼 때, 진정 현 시대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임을 알고 있으나 입시를 목표로 한 교육체계에서의 그것들은 아무런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이들이 전통과 역사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대한 문학작품과 경작법, 천문학, 예술에 대한 감각과 철학적 사고, 법체계 등이 살아있는 언어와 살가운 방식

으로 경험되어 질 수 있을 때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에의 즐거운 경험은 교육사상가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에서 말하는 자아감과 유사하게 가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등 생활 전반에서의 감각적 활동 내지는 작용이다. 해서 공간 ‘늘’은 공간환경 및 운영, 프로그램의 기획,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설정함에 있어 세심한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공간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주체적 시민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질적 준비와 함께 향후 확대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컨설팅 영역을 아우르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 3) 사업내용

- 공간탐색 : 유희공간의 활용, 향교 등 생활인접 전통문화공간의 재구성 가능성 검토, 신규설립 등 다각적 검토 가능
- 공간구성 : 문화유산을 테마로 하고 운영방식에 있어 개방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디자인이 요구됨. 카페플로어, 요리워크숍, 강의실, 모임 공간 필수, 업사이클링 등 재생자원 활용한 디자인 검토 및 유관분야 예술가 등 활동가 연계
- 카페운영 : 전통음식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음료와 간식, 브런치 메뉴 개발
- 기획 : 공간 ‘늘’의 총괄계획의 수립과 운영, 로컬푸드를 지향한 지역자원 발굴과 연결, 프로그램 기획 운영, 대안화폐를 개발 및 (장기적으로) 시민 운영시스템으로의 기획 및 발전적 운영
- 아카이빙 및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 : 문화유산 전문가와 교육기획자, 예술가 등 다소 이질적인 분야 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사업으로 크고 작은 개발, 연구 작업은 사업계획의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함. 향후 공간 ‘늘’의 모델이 확대되거나 협동조합 등 운영방

식의 다각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연구 및 컨설팅

### ○ 예상되는 문제점은?

1) 낯선 컨셉의 이질감 : 다양한 학문과 분야와의 협업이나 생활문화로의 프로그램 접근 경험이 많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조차도 문화유산은 여전히 소재적 접근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 예술가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크지 않아서 이기도 하고 교과서적 지식으로 각인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다. 문화유산 전문가들에게 예술이나 예술가는 다소 거리감 있는 존재들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아름답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경험이 숙련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조건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낯설음은 컨셉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각 분야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도전 정신이 요구된다.

2) 예산대비 효율성의 단기적 충족 요구 : 교육은 규모나 내용에 관계없이 장기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은 속성상 가시적 효과를 단기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이의 결과는 대부분 사업의 본래 취지나 의미가 왜곡되고 만다. 애초 총예산에서 공공재정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민간재정을 확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 모색 : 공간의 활성화를 최적화할 수 있는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한 공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이후의 것들이 가능한데 반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의 확보나 향교 등 기존 전통문화공간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 기대효과는?

2004~2005년 정책적으로 제안된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데에는 당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소수 엘리트의 문화적 취향이나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능적 예술교육의 풍토, 사람/시대와 호응하지 못하는 예술에 대한 개탄이 공감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에 갈증을 느끼던 많은 예술가와 교육자들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서로를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성취감은 현재 양적으로 확대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되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의 절실함은 생각 이상의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경기도 내의 것이 아니더라도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접근했던 사례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특히 미래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 청소년들에게 그들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주체적 삶으로서의 배움이 개인이나 각 세대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는 인식이나 감각적 차이가 있겠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이 왜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최근의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재적 한계를 뛰어넘어 시대정신과 삶의 태도를 접할 수 있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은 단순히 흥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매력적인 공간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만나고 그들에 의해 문화유산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들이 생생하게 살아나 삶의 대안들이 모색되어 발현되는 일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일이다.

# 경기도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고품격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 개발 -

이형복 \_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



## ○ 이 구상의 배경은?

우리말 속담에 ‘구슬도 꺾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이용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경기도는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산재하다. 우리나라 국토이용을 볼 때 전체 면적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인구와 산업 규모 면에서 월등하다. 그 만큼 경제소비주체가 풍부하다는 반증이다. 이는 외국 관광객에게도 폭넓은 ‘꺼리’를 제공한다는 반증이다.

여기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조선시대 왕릉 그리고 곧 등재를 앞두고 있는 남한산성이 존재한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세계인의 이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원화성은 국내에서 드문 도심형 성곽이며, 단순한 건물을 넘어 역사적·정치적·과학적·문화적·상업적으로 의미가 깊다.

조선 왕릉 또한 서울과 경기권에 대부분 소재하고 있고, 경기도는 융건릉 등 전국 31개 왕릉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 일대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남한산성은 ‘치욕의 장소’가 아닌 국난극복과 저항의 성지이자, 초기 백제부터 조성된 다양한 성곽양식의 전형을 이루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과거 문화유산이 단순 보존에 국한했다면, 이젠 이를 콘텐츠화하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에 근거한 연관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소중한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 국내는 물론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에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상황에서 세계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은 축제 등을 통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정체성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왕릉, 앞으로 등재될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축제와 관광산업 연계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세계문화유산이란 거창한 틀을 깨고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통해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목표이다. 온고지신이란 말처럼 옛 길을 새롭게 보자는 취지다.

먼저 경기도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조선 왕릉, 남한산성(잠재등록 예정, 이 글에서 등재를 전제하고 풀어감)을 대상으로 관련 축제와 프로그램, 관광

상품 등을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고품격 조선시대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경기도의 세계문화유산은 현재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한다. 이에 수원화성과 조선 왕릉, 남한산성을 하나로 엮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살아 숨쉬는 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남한산성의 경우 초기 백제때부터 그 연원이 시작되지만, 조선시대 대대적인 축성과 병자호란, 구한말 의병항쟁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돼 있다.

관광상품의 컨셉은 ‘고품격 세계문화유산 투어’이다. 1박2일의 경기도내 체류형 상품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주축이 되어 해당 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와 협력해 컨소시엄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국가별, 연령별로 차별화한다. 중화권과 동남아권은 쇼핑과 의료, 음식에 중점을 두고, 일본과 영미권은 전통역사문화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대략적인 코스는 기존 경기도가 수립한 ‘조선 왕릉 활용 기본계획’(2009)을 활용한다. 조선 왕릉 4개권역(남부권 - 테마코스, 북부권 - 건국코스, 서부권 - 왕비코스, 동부권 - 세종대왕코스)에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을 포함한 순환형 코스로 운영한다.

최대한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추후 관광객의 기호와 소구점을 파악해 적절한 아이템을 발굴, 적용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은 무예24기 상설공연이 연중 무휴(매주 월요일 제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행궁 수문장 교대식인 장용영 수위의식, 토요일상설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남한산성의 경우 우리소리 일장풍류, 무예스토리텔링 상황극, 전통연희무대 산성여민락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조선시대 왕실문화의 현장에서 건축물과 그곳에서 펼쳐졌던

스토리를 무대화한 작품을 감상하고, 당시의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접목시켜 한국의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내국인에게는 가족단위로 교과서 연계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문화재단, 광역·기초자치단체, 여행사, 경기관광공사, 문화예술단체, 교수집단 등)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 초기 운영방안과 사업예산

사업 초기에는 경기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유관기관이 참여한 TF팀을 마련한다. 인건비는 경기도와 각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국비(관광분야)와 자체수입을 기반으로 조달한다. 프로그램 기획은 TF팀이 주도하되 홍보마케팅과 교통수단 등의 부대업무는 과감히 아웃소싱으로 몸통을 줄인다.

관광 코스가 넓은 만큼 단체관광객은 대형차량을 이용하고 개별이나 그룹형 관광객은 이에 적절한 교통수단(렌트차량,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제공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를 감안해 코스와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참가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광역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체를 조율하는 동시에 각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타협점이 필요한 경우 중재기구나 분쟁조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 기대효과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핵심으로 무한한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다

른 지역이 자연경관이나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에 치중한다면, 경기도는 서울과 근접한 지역으로 접근성과 풍부한 상품성이 내재해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관광객 자국의 세계문화유산과 연계시킨다면 또다른 매력을 선사할 수 있다. 최근 부상하는 대규모 중국 관광객이 상품 구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주나 이천 등의 대형 아울렛을 활용하고, 현재 경기도에 1개 뿐인 면세점의 규모와 개수를 확대시킨다면 조기에 중국 관광객 특수도 기대할 수 있다.

### ○ 덧붙이는 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코스 개발에서 지역마다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행주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등의 일정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수원시는 10년 넘게 진행하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행차할 때의 코스인 창덕궁에서 용건릉까지 3박4일 동안 도보로 답사한다. 일정에 따라 일부구간을 걸으며 다양한 문화체험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관광상품 공동브랜드 개발도 필요하다. 브랜드는 관광상품의 품격과 대표성, 상징성을 담고 있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후 기념품 제작이나 홍보마케팅에 적절히 사용될 수도 있다.

##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김성태 \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장

본 사업은 경기도 문화유산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또 한편 현재는 저평가되었지만, 미래에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자산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도 본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였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학계, 경기문화재단, 언론 기관, 전문 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좌담회 5회, 종합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총 26개의 굵직한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었고, 이를 ‘경기천년, 새로운 문화의 맥을 찾아서’라는 경기도의 핵심 사업거리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기 천년’이란 개념 설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했다.

이 책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제시되었고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만한 문화유산 사업 아이템들이 제안되었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는 대소의 차이가 있겠으나, 긴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4년 현재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사업거리의 대부분이 제안되었다고 자부한다. 어쨌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고 예산이 확보·지원되어 이 책에서의 제안한 사업의 일 부라도 실현되길 깊이 바란다.

이런 염원 속에서 집행부는 민선 6기의 출범과 함께, ‘경기천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가 경기도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안한다. 경기 천년이 되는 2018년을 사업의 목표 연도로 정하고, 4년 동안 착실히 준비하면 내실 있는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 다음, ‘경기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의 제안들은 문화유산에 치중되어 있다. ‘경기천년 기념사업’이 현실화된다면 이 책에서의 제안사업들은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의 제안들은 엄격히 말하자면 아이디어의 제시이다.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되어,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있고, 너무 관념적·이상적이어서 문화 사업으로 채택하기에는 부적합 것들도 있다. 또한 아카데미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들도 있다. 이에 앞으로 이 책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분야별 전문가검토 위원회’가 마련되어, 선정 작업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제안서에 대한 선정, 보완, 심화작업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야 하겠다.

한편, 2018년은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남한의 경우, 조선에 비하여 고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통일한국’을 위한 역사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고려사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고려 역사 살리기, 알리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구체적으로 ‘개성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조사, 연구, 보존, 활용 계획은 경기도에서 나아가 하고, 그 실천주체도 경기도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하여 ‘개성고려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한다. 현재 북한은 개성의 성균관을 ‘고려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개성 성균관의 훼손 문제가 ICOMOS는 물론 문화재전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개성고려박물관’의 건립에 경기도가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고려역사현양사업과 문화유산사업이 북한과 공동으로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복잡다단한 난제들을 풀어야 하겠지만, ‘통일의 중심, 경기도’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최적의 사업이 아닌가 판단된다.



경기 새천년,  
문화의 脈

펴낸날 / 2014년 6월 30일

펴낸이 / 조유전

책임편집 / 김성태

편집 / 김영화, 우승희

펴낸곳 /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팀

주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 031-231-8551

팩스 / 031-898-7229

홈페이지 / [gjicp.ggcf.kr](http://gjicp.ggcf.kr)

만든곳 / 이즈커뮤니케이션 (031-239-4221)